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겸 주간 이강희
편집장 이영환
외대본부시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창리 산89
인쇄인 김영수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594호 1992년 11월 24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 급인가

작은 힘이지만 모아지면 민정수립

"내가 사먹는 이 군고구마 하나가 민주정부의 밑거름이 된다면…"

지난 9일(월)부터 용인켐퍼스 학생회관 앞마당에는 군고구마를 파는 학생들이 등장하여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대선운동본부 기금마련을 위해 지원사업단에서 진행한 이 사업과 더불어 어문학관 로비에서는 동양학대 각 과에서 돌아가며 일일찻집을 열고 있으며 로비 옆에는 노어과 대선운동본부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찬과 쥐포, 문어발 판매가 지난주부터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 18일(수)부터 3일동안 지원사업단에서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5천학우 작은 정성모으기 3일장터'를 마련하여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였다. 밤송, 화장품, 청소용구등 지휘생활품에서 민속해방 귀걸이 등으로 이름붙인 악세사리, 옷, 참교육 물품, 우리농산물(과일)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품들이 판매되었다. 비가 내린 19일(목)·20일(금)에는 학생회관 로비에서 과일을 판매하였는데, 한 학생이 정말 농사꾼이라도 되는 듯이 신명이 나서 학생회관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과일을 팔아 지나가는 많은 학우들의 시선을 끌었다.

서울켐퍼스에서도 일간지 광고게재를 위해 대선운동본부에서는 오는 27일(금) 일일주점과 핫도그 판매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도 대선운동기금과 일간지 광고게재 기금마련을 위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성과를 얻기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기금마련을 위한 사업은 여러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산물 판매, 지역농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터나, 학생들이 가져온 물품으로 마련되는 바지회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터나 바지회, 주점과 같은 공간을 통해 대선을 맞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농민·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함께 대선에서의 과제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어야겠다.

각 과별로 또는 동아리별로 기획을 짜아 하루잣집이나 물품판매사업등을 기획하여, 과 구성원들간의 결합력도 높여 나가고 민주정부 수립에 우리의 작은 정성과 노력을 보태보는건 어떨까?

"부재자 투표는 반드시 합시다. 그리고 부정선거 사례는 고발 합시다."

지난 18일(수) 용인켐퍼스 사회대 대선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공정선거 감시단(이하 공감단) 교양학교에 참석한 공감단 주세들은 부정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공감단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토론하였다. 작은일이지만 '공정선거 실현, 민주정부 수립'이라 쓰여진 뱃지를 달 수 있도록 선전하는 것에서 부터 투표참여 유도, 부정선거 사례고발, 언론감시등 여러가지 실천활동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의 유부는 정권교체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하기에 공감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용인켐퍼스는 현재 중앙과 동양학대·서양학대·동구어대·인문대·사회대 대선운동본부 산하에 공감단이 발족되었으며, 동아리연합회에서도 40여명 정도의 공감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동아리학우의 참여를 위해 공감단과 연계하는 특별기구도 영상사업단과 선거보도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다. 서울켐퍼스에서도 이번주 중에 공감단 모집, 발족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선거 감시활동은 공감단 소속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외대인 모두가 공감단이 되어 부정선거를 저지할 수 있어야겠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불법·금품·타락행위 저지 △부정선거 고발운동의 활성화 △투표 참여하기 △선거 아르바이트 안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용인켐퍼스 기독학생회 SCA에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여 언론의 보도를 감시하고 있다. 소모임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선거보도 감시활동을 전개, 불공정보도 사례를 고발, 선전하는 것도 훌륭한 공정선거 감시활동이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 주거지 주소를 적어 신고를 하면 해당지역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25일(수)까지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자신의 주소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해야 한다. 양 켐퍼스 대선운동본부에서 신고 접수중이며 각전물로비에 접수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본교생 모두가 공감단이 되어 부정선거를 저지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만이 87년 구로구청 부정선거와 같은 사건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며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선교양학교 졸업 선물은 공정선거 뱃지

몇주전부터인가 대생협에서 관할하는 용인켐퍼스 자동판매기 옆에는 '지역감정 타파, 민주정부 수립'의 문구가 새겨있고, 담배갑만다 공정선거를 위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학생회관 로비를 지나가노라면 눈에 띄는 선전물이 있다. 사각의 탐처럼 생긴 선전물에 동아리 연합회에서 17일(화)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선교양학교의 그날 일정이 쓰여 있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모은다. 교양학교는 매일 오후 5시에 동아리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지루하지 않게 하루 30분씩 편파언론보도, 관권개입선거, 금권선거, 투개표과정의 비리등 사례중심으로 선거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이러한 교양학교를 통해 동아리인들은 대선기간에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앞으로 선전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지금 시기에 학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상대로 하여 민주정부 수립의 절박성·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선전해 내는 것은 학생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용인켐퍼스 인문대 대선본부는 25일(수)·26일(목) 오후5시 여학생휴게실에서 공정선거 감시와 부정선거 사례에 대한 교양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학우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게 예쁜 엽서로 초청장을 만들어 1백부이상 발송하고 있다. 또 20여명의 대선본부요원들은 하루 실천사항으로 백지스티커를 1백장씩 작성하고 있다.

지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는 인문관 로비에 이동학생회를 마련하여 인문대 학생들과 2백여잔의 차를 나눠 마시며 대선토론과 공감단 지원을 받고 낭랑18세·6공비리 척결 서명을 받았다.

이번 주부터 서울켐퍼스 대선운동본부에서는 휘경역에서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외대 발전의 내용으로 대선을 맞이한다'는 기조하에 마련된 이 서명운동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재단의 비리,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 등을 선전하면서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이미 영어과와 서반어어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14일(토) 전대협 대선운동본부 발족식과 범국민 결의대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백여명의 서명을 받아왔고 현재 9천명가량의 서명을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켐퍼스에서는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투표참여, 공정선거 쟁취, 관권개입 금지,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 등을 선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아직 선전활동이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용인켐퍼스의 학생들은 주말마다 성남에서 공성충련 학생들과 함께 가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말 선전전이 각 학교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강대에서는 '보보즐'이라고 이름붙여 토요일마다 인근 지하철 역내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대의 경우 이번주 중에, '공명선거·투표참여'를 내용으로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시내가두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전남대에서는 부산대와 연계하여 상대지역으로 교류방문단을 파견(24일부터 26일까지) 하여 영·호남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시민·학생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며 12월6일경에는 2차 교류방문단이 각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주에는 하루를 '2인학우 대자보 쓰기날'로 정하여 전교생이 대자보를 작성하여 학내 곳곳에 자신들이 작성한 선전물을 붙여, 민주정부 수립의 열기를 드높였다.

한양대에서도 지역주민들과의 한마당을 통하여 공정선거 실현, 민주정부 수립의 결의를 다지고 노래로 시민과 학생들이 하나되는 정거운 자리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민자당이 안되는 이유, 대선운동본부의 위상과 역할, 우리가 할 일들을 적어놓은 희망수칙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희대 학생들도 선전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교에서도 다양한 선전방식을 마련하여 활발한 선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공정선거 실현과 금품 근절을 위한 ○○동(○○지구) 동반대회', '○○동 청소하는 날', '민주정부 수립과 ○○동 하나되기위한 동민 한마당'등을 준비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이 허물없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속에서 현정권의 실정을 함께 이야기하고 정권교체의 결의를 다진다면 훌륭한 선전활동이 될 것이다.

이 외에 대자보·스티커 부착하기, 정권교체 명찬달기, 범국민 전화걸기 운동 등을 통해 선전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와 자신있고 확신에 찬 발투로 지역스러운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주체가 되어 나서야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로 자신의 가족부터 시작하여 이웃들과 성심한 대화를 진행시켜 나간다면 외대인들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는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황효순·이충미 기자

진리·평화·창조

예나 지금이나 외대인의 캠퍼스는 지구촌

전 세계24개 언어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 외대는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폭넓은 학문을 탐구하는 개성있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54년 국내 처음으로 외국어 전문 교육 대학으로 태어나
38년이 지난 오늘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힘차게
오늘을 만들어가는 외대인의 모습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를 호흡하는 젊음,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젊음이 만들어 갈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캠퍼스는 바로 지구촌 전체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밝음의 배움터 — 서양어계열
동양권에 한국을 심는 주역을 양성하는 — 동양어계열
21세기 신개척자의 꿈과 이상이 숨쉬는 — 동구어계열
실력있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 법정계열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들의 터 — 상경계열
외국어 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 사범계열
더 나은 인간 삶의 창출 — 인문계열
자연과의 대화, 이론과 실천을 겸한 — 자연계열

사 설

민주정부수립 위한 참여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에 국민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집계될 것인가. 이는 단지 한 후보자의 당선이 어느 정도의 국민지지기반을 가졌는가를 평가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바로 현재의 국민의식을 잴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 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아무개(31세)씨에 따르면, 이번 김복동의원 납치사건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전화여론조사를 실시, 여론을 알아본 결과 총 51명 중 20~40대의 비교적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계층은 한결같이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번 선거도 인물론·지역론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선거일을 투표율 저조를 불러올 금요일로 확정·공고했다. 총 유권자중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중립내각이 사회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층들에게 '황금연휴'를 선물한 것이다. 이는 결국 여당프레미엄이라 일컬어지는 지지표를 갖고 있는 현 다수당을 도와주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부산과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번 대선이 또다시 지역색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려하여 대학생 중심으로 지역색 타파를 위한 모임을 갖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동향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정선거를 치루려 한다. 하지만 중립을 선언한 6공 정부는 이를 무색하게 만듦고 있다.

'체육관 대통령', '국민투표율 1백 퍼센트'등을 자랑하며 부정선거를 일삼던 지난날의 정권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고단위 국민투표율 하락술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이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참민주주의 실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 진정으로 민주정부수립 의지를 가진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립내각도, 다수당의 호언도 필요없다. 오직 주권행사를 통해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국민의식만이 필요한 것이다.

부재나 투표신고가 오는 25일(수) 까지이다. 단순히 5년만에 돌아온 공휴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나는 국민의식이 절실하다.

인물을 보기 전에 정책을 살펴야 하겠으며 또한 한국사회에 통일의지를 가진 민주정부가 수립되도록 우리 모두 자신의 한표를 행사하자.

본교발전 위해 다시 '단결'하자

각 대학이 93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원서접수를 하고 있다. 본교도 어제(23일) 부터 오는 27일(금) 까지 서울캠퍼스에서 원서배부 및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내년 캠퍼스에 활기를 띄워줄 새내기들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가야할 때 이다. 하지만 새내기들에게 활기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본교의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

93학년도 대성학원의 학력점수 배치표(체력장 제외) 를 살펴보면 본교는 평균 2백51점대에 법, 상경계열이 올라 있다. 물론 이러한 입시 학원차원의 통계가 한계성을 가진 것과 실지 입시결과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치표에서도 나타났듯 본교 위상하락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 흔히 일류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을 차지하더라도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보다도 입시학원 또는 신입생 대상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대학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교명을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하였지만 아무런 특수성도, 이렇다할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21일간의 수업거부를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측은 본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단추를 채웠지만 학내 구성원들마다 '씁쓸하다'는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단의 본교 발전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합의서, 모호한 문구로 이뤄진 문장들. 그 어떤 것 하나 본교의 미래를 밝혀주기에는 미진하다. 서울캠퍼스 학생측은 이번 수업거부를 숭리적으로 받아안기 위해 지난 주 수요일까지 각 기층별 학자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교양과 내년도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각자가 각 단위의 학생회 선거에 바쁘기만 하다. 용인캠퍼스는 현 총학생회의 임무이월이 그리 순탄치 못해 학지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다. 대학당국은 어떠한가. 이번 달 말까지 '그린벨트 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의했으나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움직임이 있어도 학생들은 알 길이 없다.

본교의 발전은 졸업한 동문 중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이들이나 우수신입생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현재 본교를 다니고 있고, 또한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때이다.

흡산의 소리

흡산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어야 한다

"그게 현실인걸"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로

신입생 수련회로 시작된 대학 초년생의 두 학기도 이제 마감할 때가 되고 있다. 대학이란 곳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뭔가 찬란하고 낭만적이기만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지난 입시에 찌든 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의 고민은 답답하고 안(?) 낭만적인 것이 더 많았다.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겉표지가 사회의 엘리트층을 말해주는 때는 분명 아니다. 이 결과는 대학정원증가로 오는 대학생의 다량배출이라는 현상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 졸업장이 곧 사회의 괜찮은 층의 지위 지켜줌이던 시대도 간지 오래이다.

교정을 둘러보고 학우들도 둘러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둘러본다. 교정 안내판에는 대지보보다 학원 안내글이나 방학 중 배낭여행 안내글이 더 많이 붙어 있으며, 대자보 앞의 학우도 몇 눈에 띄지 않는다. 입시난 못지않은 취업난이라는 것이 1학년때부터 고민으로 다가오며 새벽부터 학원으로 학원으로 학우들을 몰아가고 있다.

이제, 내가 글을 쓰는 이유를 밝혀야할 때인것 같다.

우선 나는 우리 흡산들에게 진정한 '주인되기'를 권유한다.

지금은 그야말로 선거의 시기이다. 학교 내의 각 과, 단대장 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까지.

여지껏, 우리는 수동적인 주인이었다. 우리의 선택폭은 '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 줄 것인가'에서 사고가 시작되어 '내가 뽑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의 사표가 될 우려를 잠깐 하는 것으로 그치고 도장 찍는 것으로 멈추는 정말 수동적이기만 한 주인이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는 가장 넓은 범위였을런지도 모른다.

'나라는 개인을 둘러싼 고민도 벅찰만큼 많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학점에 대한 것, 친구들끼리의 부딪힘에서 오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을 멈추고 시야를 좀 더 넓히고 높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나를 벗어난 우리를 인식했을때, 내가 몸담은 사회라는 생각보다 남과 내가 함께 하는 우리의 사회임을 인식했을 때 말이다.

그 다음, 우리는 뭔가 빼앗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을 누르고 위에 서야한다는 경쟁의 압박감—이는 우리의 사고의 폭을 줄이고 있으며,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점해야 되는 넓은 학문의 폭을 좁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국에 올분을 참지 못하고 같이 거리를 나서 동지가를 부르던 대학인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되찾자고 이 글을 쓰는 것 또한 아니다.

이젠 무력탄압보다 어쩌면 더 두려운 이데올로기 공세로 우리 스스로 거부감없이 스며들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이다.

가깝게는 우리 흡산들에게 크나큰 벽으로 다가왔던 사립학교법과 The Argus제작 중지로 이어지는 학원 인정화 대책의 근본을 생각해 보고 대선에서는 범보수 대연합이라는 각 정당들의 정책들과 민중 운동 진영의 범민주단일후보와 민중 대통령을 생각해보자.

"이게 현실인걸"로 그칠수 없는 우리는,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어야 하기에.

<잠기숙 서양·영어1>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본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뛰어준 총학생 회장과 이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 외대인들은 "학교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도서관 입구쪽 만들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비좁은 학교이기에 도서관 입구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교문으로 통하는 길에서 도서관입구까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역만이라도 금지 구역으로 정했으면 한다.

둘째, 도서관 자리 잡아 주기를 삼가하자는 제안을 내고싶다. 가까운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가 공부할 자리는 스스로 일찍 나와 잡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닐까.

셋째, 열람실 내에서만은 캔따기를 삼가 해주면 좋겠다. 본인은 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조용한 열람실이라 어다서든 크게 들려 방해가 많이 된다.

넷째, 공부를 마치고 귀가할 때 자기가 앉았던 자리의 휴지와 신문은 꼭 본인이 버리도록 하자.

다섯째, 언제부터인가 도서관 입구 바로 앞에도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니 입구 만들은 삼가 하자.

여섯째, 흡연실이 조속히 만들어 졌으면 한다. 이번 총학생회장의 끈질긴 투쟁과 신념으로 합의된 사항이 조속히 실행되기 바라는 바이다.

일곱째, 풍물패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비좁은 학교이기때문에 제대로 연습실도 없으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취입을 목전에 둔 복학생들에게는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여덟째, 대학 입학 사정표에 의대 합격점이 올바르게 씌여지길 바란다.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점이 학력고사 성적인 것을 감안 할 때, 시중의 대학입학 사정표에는 본교의 합격 점수가 턱 없이 낮게 표시 되어 있는 것 같다.

만약 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교 발전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실천 하자.

<김대중 상경·경제3>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

대학생활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제활용 사업의 하나인 우유팩을 닦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들을 우유팩 닦는 아이들이라고 칭한 것은 자기 이름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칭했기 때문이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은 2학기 초부터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 문제를 고려하여 쓰레기 제활용사업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모집 했으며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2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그 숫자는 채 열명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매주 목요일 오후에 어김없이 찾아와 우유팩을 닦는 이들이 있다. 바로 왕산 서반아어과 90여학생 몇명이다. 첫인상이 지라오면서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랐을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서 하려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앞치마를 가슴에 두르고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우유팩을 자르고 씻어서 손수 말리는 작업을 2학기 초부터 목묵히 해오고 있다.

한번은 같이 나도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진해서 하세요"

그들 중에 한명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뿐이고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예요". 나는 그말을 듣는 순간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고 그들이 정말 착한 천사처럼 생각됐다. 세상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면 세상은 정말 이렇게까지 각박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유를 닦을때 풍기는 우유 썩는 냄새는 정말 고약한데다가 어떤 우유팩인에는 휴지, 담배꽁초, 심지어 가래침까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우유를 먹는 학우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유를 닦는 일에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엄밀히 말한다면 우유팩을 닦는 일이 결코 힘든 노동을 요하거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아름답고 가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물질만능주의가 빚어낸 개인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가 우리를 그러한 일에도 감명을 받을 정도로 무심하고 메마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리라.

그들의 밑치림 우유팩을 닦는일은 우리모두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며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니다. 지금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종대 동학·아프리카어 2 대생협 신문부장>

학내 난방시설 현대화와 적절한 운영을 바란다

조금만 있으면 종강을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올해의 모든 학기가 끝나기 전에 몇가지 불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쓴다.

특히 학내 난방과 관련한 사안이다. 서울캠퍼스는 모든 학우들이 알다시피 일반 강의동에 경유를 때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다. 각 대학마다 학생복지를 위해서는 혼하게 있다는 스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난로 또한 너무도 구식이고 불을 피우면 경유 타는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이다. 국민학교시절 조개탄을 때며 수업하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난방시설이다.

이 또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난방장치를 가동해 주지 않고 있다. 강의실의 경우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더군다나 음씨년한 상태인데 난방도 가동되지 않아 수업에 지장을 준다.

노천극장 지하의 난방은 어떠한가. 작년 이맘때쯤 총무처 명의로 발송된 '학내 개인용 전열기 사용금지' 공문이 생각난다. 음해처럼 다른 년도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 오는 경우에는 더욱 대학당국의 행정이 불만스럽기만 하다.

경유용 난로는 일반 학우들은 사용조차 불허되고 있어 겨울철 수업 이외의 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경유를 배급받을 때에는 각 건물의 안내실에서 받고 있는데, 오후5시에나 배급되고 있다.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최대한 양을 줄이고 학우들이 아껴쓰도록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경유 20ℓ를 하루에 10ℓ씩을 배급하면서 경유만 아껴쓰라고 한다면, 학내에서는 저녁시간에 활동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경유 배급시간을 오후 5시부터로 상정한 것 자체가 이러한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서울캠퍼스 파업 이후 대학당국과의 합의안에서도 불수 있지만, 대학당국은 '점차적으로 학내 건물을 현대화 한다'라는 부분에 합의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렇게 학생들을 추위에 방치해 두고, 또한 학내 활동을 어렵게 하면서 합의문구 중 '점차적'이란 것은 언제부터 시작할 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우리 대학의 총장은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알고 있는지 되물고 싶다.

어제부터 93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우리 93학번 새내기가 될 후배들에게 본교의 겨울기간 동안의 추위와 학내 난방시설 녀부는 정말 몰려주기 싫은 것 중에 하나이다.

<한성원 동양·마인이3>

1년도 안된 세칙이 감히 38년 Argus에 도전하다니

정원식은 잤지만 학안대는 남아

—C90—

기사내용은 이해 못해서 문제삼지는 못하지만 학점은 물고 늘어지는 누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모군—

부산외대에 영자신문 보내야해. 내 Argus 돌리도

—I92—

공부 못하는 놈은 말도 못하나?

—Cz—

최고 열악한 조건으로 최고 훌륭한 신문을 만들라고?

—야생난초—

언론탄압에 당당히 맞서는 Argus. 열심히!

—Ms 장—

말도 안된다. 흥!

—Ro민지—

웬 중지? 왕 지지!

—R90—

백지 대자보

주제 : 영자신문 The Argus 제작중지 사태를 보며

학원지주화 투쟁은 The Argus 제작중지 철회부터

—E92—

—E, 날라리—

신문은 학교 어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G92—

언론의 자유는 헌법조항에 이미 써있지 않나요?

—I—

학점제한이 무기인가, 그렇다면 교수도 강의평가제로…

—PL92—

귀여운 공룡 아거스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다.

—영심이—

나도 누구처럼 언론장학생이나 키워들길

—주간교수—

제작중지 시켜야 월급올리가고 신문값 나가지 않으니 좋지!

—정직한(?) 직원—

BC CARD

제2회 대학(원)생 학술논문 현상공모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신한 지성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비씨장학카드 발급을 통해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비씨카드가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대학(원)생 학술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2. 논문주제
- 신용카드의 한국적 위상정립과 정착화 방안
-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신용카드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 신용카드의 이용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 신용카드의 고객만족(CS) 경영전략 방안
- 국제화시대의 신용카드 역할
- 정보화 사회에서의 신용카드산업의 발전방안
- 신용카드의 법률적 문제관련 제주제

3. 응모마감일
- 1993. 3. 2(화)
  - 우편접수는 등기발송에 한하며,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4. 응모요령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내의 분량(10매정도의 요약문 첨부)
- **논문작성요령** : A4 규격용지(워드 프로세서) 사용
- **제출처** : 비씨카드주식회사 기획조사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우편번호 137-070

5. 입선작발표 및 시상
- **입선작발표** : 1993. 3. 31(수) (서울경제신문 광고 및 개별통지)
- **시 상**
  - 최우수작(1편) 상금 300만원 및 상패
  - 우수작(2편) 상금 각 100만원 및 상패
  - 가 작(3편) 상금 각 50만원 및 상패
  - *응모자 전원에게는 고급기념품 제공

6. 기타사항
- 논문 심사결과에 따라 부분별 입선자이 없을 수 있음.
- 논문 응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학증명서 1부를 첨부할 것.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선자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기획조사부로 문의 (전화 : 02/520-4831, 4833)

비씨장학카드 발급안내

"선배님의 비씨카드가 후배를 돕는 장학카드가 됩니다."

비씨 장학카드는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카드이용액(신용구매대금)의 일정금을 적립하여 회원님의 모교에 인재양성 및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전달하는 장학카드입니다. 따라서 비씨 장학카드 회원께서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모교의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기존 비씨카드와 동일합니다.

■발급대상
- 졸업동문이면서 기존 비씨카드회원이거나 신규발급을 원하시는 분

■신청방법
- 기존 비씨카드 회원인 경우(교체발급 대상)
  - 비씨카드를 발급받으신 해당은행 영업점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신청내용 : 회원의 해당 대학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 비씨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신규발급 대상)
  - 비씨카드 발행은행 영업점에 서면(비씨카드 입회신청서)으로 신청
  - 서면 작성시 해당 대학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함께 기재

비씨카드

■카드발행은행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기은행, 경남은행, 충청은행

서울, 교수·학생 외대발전 의지 다져

기층 학생조직건설·용인과의 연대 절실

합의서 이행위한 대책마련 시급

지난 12일(목)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측 합의사항'이 전격적으로 타결을 보면서 서울캠퍼스 파업이 칠회된지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된 합의서 이행을 둘러싼 우려의 소리가 지난 18일 열린 '교수·학생 대동한마당'을 계기로 다소 수그러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합의서내용과 인준절차상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는 학내 여론이 팽배하는 등 문제제기가 계속됐으나 지난 18일(수) 교수 학생 대동한마당을 통해 전외대인의 단결을 다짐하면서 다시 화합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18일 있었던 '교수·학생 대동한마당'에서는 이강희총장을 비롯 20여명의 교수와 학생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이강희(법학과 교수) 총장은 이자리에서 "외대발전을 외쳤던 학생들이 대부분 1,2학년인 것을 보면 외대가 웅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지금은 "이러한 화합의 장을 통해 외대발전의 열기를 드높일 때"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박상남(서양·노어4) 총학생회장은 담화사를 통해 "외대의 전진과 발전을 위해 모든 학내 주체들이 단결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발전이란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극복할때 진정한 발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해 현실의 난점들을 들어 본교 발전운동을 멈추려는 대학당국의 의도를 꼬집었다.

그러나 이 행사외에는 총학생회가 파업칠회 이후 아직까지 92년 하반기의 사업들을 내년, 내후년으로 발전해 내기 위한 각단위 기층학생들의 조직구성이나 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등이 미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파업기간동안 활발히 논의된 파발전추진위원회(이하 파발추)나 외대발전추진위원회(이하 외발추)의 구성과 위상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영어과, 노어과, 불어과, 서반아어과 등 서양어대를 중심으로 꾸려진 파발추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성원확보작업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 용인캠퍼스의 각과 학자주체들을 포괄하는 단체'로 93년의 위상을 규정해 놓은 외발추의 경우는 조직미비와 기층단위와의 연계부족으로 이역시 현재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학생회 한관계자는 "원래 파발추·외발추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층 학생들의 학자참여를 유도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된 각 단위학생회 선거준비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대발전운동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용인캠퍼스와의 연계문제와 합의서 이행 대책수립에 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 윤곽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 원치승(정과·정외4) 부총학생회장은 "파업이후 학생·대학당국 양측이 소강상태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나 각 단위의 선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직정비와 용인캠퍼스와의 연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학생회 선거가 끝나는 12월 초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합의서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암시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용인캠퍼스 제14대 총학생회 건준위 기획부장 노원숙(서학·영어4)군도 "서울캠퍼스의 파업이 그 성과물도 많지만 무엇보다 용인캠퍼스의 학생들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지적하고 "각과발전 친목회나 서울, 용인 공동축제 등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해 서울, 용인 학생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지적해 양캠퍼스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도 27대 총학생회가 꾸려지고 새 집행부와 함께 합의서이행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겨울방학 중 단기사항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에 이르기 까지 를 재분석해서 이행기한, 신축건물의 설치안 등의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원지주화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화기자>

양캠총학, 학교에 질의서 발송

복지기금 2억원 조성 요구

서울·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1월 19일(목) 이강희(법학과 교수) 총장앞으로 "제단 전입금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대한 대학당국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번 질의서의 내용은 양캠총학생회와 대학당국이 올해 1학기 등록금 협상시 구두로 합의한 '재단과 대학당국은 복지기금으로 1억원씩 적립하고 그 이자분을 캠퍼스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더 명확히 하기위해 양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대학당국은 5일이 경과한 오늘까지 아직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구두합의 사항이행에 대해 대학당국이 불성실하다는 학생들의 의구심이 나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복지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에 대한 대학당국의 조속한 답변이 요구된다.

■본교 기숙사 실태 점검

대학촌의 현실적 대안 기숙사

우리나라 1백7개 4년제 대학 중 70여개 대학이 기숙사가 설립되었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수도 4만여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본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학 기숙사는 문교부 대학설치 기준령의 '대학에 기숙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용인원은 총학생정원(대학원생 포함, 야간강좌 제외)의 15%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대학이 서울대와 몇학교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이다. 본교 서울캠퍼스는 아예 기숙사가 없는 실정이고 용인캠퍼스는 7백24명(남4백48명, 여2백76명)의 수용시설이 갖추어져 14%이상의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으나 지방학생과 먼거리 통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그 규모가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용인캠퍼스 주변은 대학촌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 텔레비젼을 비롯한 언론매체에도 보도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이 지역(모현) 에서의 거주생들은 전세값과 하숙비가 비싼 것도 큰 부담이 되지만, 그보다는 목욕탕, 극장 등 위락시설과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이고 병원이나 은행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더욱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제2캠퍼스 주변환경의 열악함으로 용인캠퍼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타학교(경희대 수원5백32명, 고려대 서창5백34명)의 수용인원에 비해 본교는 많은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있으나 그 복지와 사생들의 차지활동에 대한 제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학생들에게 가장 괴부로 와 닿는 불만은 역시 식사의 질과 식당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경희대 서울캠퍼스 기숙사 '에지원'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 사생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반면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의 경우는 한달50회의 식권을 12장까지 환불해 주고 있어 사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 밖에 월정식권제, 완전 쿠폰제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으나 어떤 제도든지 식사 질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에서 장단점이 있다. 본교의 경우는 한달 40회의 식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식권이 남는 사생들은 이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끼니당 9백50원 하는 식비에 비해 식사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식당의 수익을 다시 사생들에게 되돌아 올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되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당의 '사생회 직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대학당국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공간과 시설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현학사의 경우 탁구장과 헬스장이 마련돼 있으나 그 규모와 시설이 태 부족한 실태이다. 한양대 안산캠퍼스의 경우 주거공간과 분리된 후생복지회관이 있어 복지관 내에 사생전용 독서실, 음악감상실, 시청각실, 목욕탕, 식당, 매점, 면회실, 다리미실 등의 복지시설을 해 놓았다.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 온수공급이 오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더우기 3층이상의 고층까지는 수압이 낮아서 제대로 온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사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모현학사 운영장장 권태봉씨는 "기숙사 온수와 난방을 가능한 오랫동안 가동하고 싶어도 원료비가 부족해 불가능한 현실이다"며 기숙사 운영의 제정난을 호소했다. 이러한 관계자의 말에 대해 이기택(서학·유고 2) 제14대 모현학사 상생회 남사생장 당선자는 "실질적으로 온수 공급문제는 여학사는 더 심각해 어떤 여학우는 5층 세면장에서 머리를 감는 도중 물이 감지기 나오지 않아 5분이상을 기다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감는 일도 있었다"며 "펌프시설을 보강하면 해결될 문제인데도 부총장 직속기관으로 규정된 기숙사에 대한 대학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말한다.

5시만 넘으면 공동화 되어 버리는 캠퍼스에서 기숙사는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학문활동과 자치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은 유일한 매개체일 것이다. 이런 기숙사를 발전시키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87년부터 대학 기숙사 시설을 대폭 늘인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91년도까지 4백억원을 지원, 자기집 이외의장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율을 전국적으로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전혀 이뤄진 부분이 없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매년 1백20억원의 기숙사 기금을 조성 희망하는 학교에 융자를 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학재단은 기숙사 발전에 성의가 없었다.

재단과 대학당국이 학교발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숙사 한가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현재 기자>

식사 질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시급

영자신문, 곧 10월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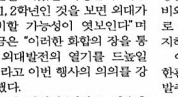
신문운위 일정문제로 마찰은 계속

지난 10월 24일(토)을 기해 기자들과 강덕수(노어과) 주간교수의 마찰로 신문제작이 중지됐던 본교 영자 신문사가 학생기자들이 대학당국의 입장을 다소 수용할 자세를 보이면서 해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18일(수) 밤 9시경 있었던 주간교수와 기자들 사이의 면담에서 그동안 '대학당국의 입장인 성적규제조치는 학생들의 편집자율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해오던 학생기자들이 신문제작을 위해서는 일정정도 대학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부터 비롯되었다.

또한 학생기자들은 지난 20일(금) 오후 2시에 있었던 2차 면담에서도 1차 면담의 입장을 고수하며 "10월호에 한해서 편집장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밝히고 "일단 성적규정의 취지에 간교수는 "신문사운영위원회의 소집과 학생대표 참여 보장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대학당국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오는 23일 최종결정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대학당국은 신문사를 통해 10월호 신문은 26일(목)경에 발행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신문사운영위원회를 오는 12월 1일(화) 연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생기자들을 신문사운영위원회를 12월로 연기하는 것은 대학당국이 이번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12월1일 신문사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드러난 '중립'의 의미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걱정스럽다.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심판하고 양심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현직 국회의원을 납치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큰소리를 치는 대통령을 관권개입 선거를 폭로한 한준수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말도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옛기는 말이 돼버렸다.

불과 2개월전 민자당 탈당과 함께 중립을 선언한 대통령이 안기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납치하고도 "무슨 의혹이 있는가. 가족들이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경찰을 동원한 것이다"라는 어설프고 뻔뻔스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유린에 대해 사법부는 감히 말 한마디 못하는 판국이다.

▲대선이 이제 꼭 24일 남았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4천만 민중들 앞에 놓인 걸림돌은 이렇듯 크기만 하다. '선거사의 혁명'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의 공평과 중립을 역설하던 대통령은 이번 김복동의원 납치사건을 통해 '김영삼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언한 바와 다름없다.

금권·불법선거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권력도 "과거 어느 선거에 비해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민자당의 편에 서서 김영삼을 옹린하기에 여념이 없다. 김영삼이 민주산악회 해외지부 회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친필서명이 적힌 손목시계 2백개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미국세관에 압류된 사실이 있었지만 사직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간첩단 사건 등을 이용하여 선거판을 떠주무르듯 좌지우지할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제 온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국가 공권력의 중립을 기대하고 그들이 말하는대로 공정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역대 선거를 통해 익히 보아온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때 많은 금권·관권선거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정권의 의도대로 부정선거를 통해 온 국민의 정권교체 염원이 담긴 소중한 표를 도둑질하게 들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 각자가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두 눈 크게 뜨고 뛰어다녀야 한다. 부정선거가 막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굴종과 오욕의 역사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진정한 민주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황효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외대인은 이렇게 대선을 맞이합시다.

이제 대선이 24일 남았습니다.

외대인들의 요구를 내용으로 대선을 맞이합시다.
외대의 열악한 상황은 비단 동원재단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현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 취업난 문제 해결, 교육재정 확충,
사학재단 비리 척결, 그린벨트법 조정을 요구하며
정권교체의 장으로 대선을 맞읍시다.
1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화·수·금-휘경역앞. 낮12시~4시까지)

공정선거감시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금권·관권선거 등 부정·불법선거운동을 저지하고
공정선거를 쟁취하기 위해
외대인 모두가 불법사례를 고발하고
언론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애국외대 3천인 선언을 위해 전외대인의 힘을 모읍시다.
12월10일경에 사립학교법 개정, 취업난 문제 해결,
사학재단 비리 척결 등의 내용으로
중앙일간지를 통한 광고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투쟁은 외대의 상황을 알려내는 것으로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외대인들의 자그마한 투쟁입니다.
외대인들의 빠짐없이 참여로 함께 합시다.
(외대발전과 애국외대 3천인 선언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 27일(금) 오후2시~11시. 미네르바호프)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은 7천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26대 외대사랑 총학생회

보론 I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선거의 양면성

박정희 정권, 비상사태의 일상화로 선거제도를 희석화
경제성장위한 개발독재, 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율성 말살

제 진 수
<동아대 정외과 석사과정>

정치지형의 거대한 변화는 선거에 대한 적극적 의미부여와 함께 그것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흔히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선거를 거론하는데, 그것은 자기지배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동일시하는데에서도 선거의 의미는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선거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서 수많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상에 대한 상충하는 입장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렉스 드 토크빌은 "노예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노예가 노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로써 선거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부정적 입장 특히 자본주의하에서의 대의적 방식에 대한 극단적 반대는 레닌의 혁명전략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민주적인 경쟁이 다양한 집단들에게 단기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 노동자를 동원하고자하는 정당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흐르크하이머는 자본주의하에서 개인과 집단이 부유해지려면 체제내로 통합되어 들어가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의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마르크스에서 잘 드러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의 대의제를 부분적인 진보성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인 것으로 평가한다. 즉 인간의 권리를 소수의 대표자에 의해서 대중의 위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부르조아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구적 관념의 산물이며 기만적 술책이라는 것이다. 단지 마르크스는 노동자계급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적인 체계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달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자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조직되어 사회주의의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해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선거는 부차적이고 한시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닌은 민주주의를 계급지배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계급적 본질을 간과함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투쟁의 산물로써 부르조아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생성과정에 대한 특수성과 이행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모든권리의 프롤레타리아적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와 레닌의 입장에 대해 쥴란차스는 러시아에서 스탈린주의와 억압적 국가가 발전하게 된것을 후진적 경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맑스와 레닌의 실천과 사상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는 기층 민주주의 조직에 의해 간단히 파괴될 수 있다고 본 맑스와 레닌의 신념이 틀렸다는 것이다. 이런 신념이 1917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명을 반민주적인 길로 인도함으로써 오늘날 소련 해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와 달리 후기의 엥겔스나 베른슈타인은 선거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1895년 엥겔스는 현대전의 수행방식에서 나타난 기술상의 변화로 인하여 무상봉기를 수행하기가 어렵게된 상황에서 보통선거의 확대와 의회참여를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사회당은 1890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고, 1912 선거에서는 35%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1차대전에 직면하여 국수주의화됨으로서 그 기대는 무산되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선거의 역할이 한계를 드러냈다거나 이율배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성의 출발점이되는 것이다. 즉 2차대전 이후 조직지본주의의 점진적 쇠퇴와 신중간계급의 경향과 매스미디어에 의한 대중의 단일화 등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혁명'의 요구는 비가역적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쥴란차스가 '국가, 권력, 사회주의'에서 "보통선거가 없이는, 언론과 출판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가 없이는 삶이란 모든 공공제도 속에서 화석화되어 버린다"는 지적을 상기 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지형의 거대한 변화속에 있는 현실에서 선거에 대한 적극적 의미부여와 활용에 대한 고민이 더욱 큰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선거가 갖는 양면성의 딜레마는 한국의 정치사에서 그 형태를 약간 달리하면서 제기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절차는 인민의 권력에 대한 투쟁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의 종결과 함께 진주한 미군정에 의해 부여된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선거, 에 대하여 한국민중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는 서구의 그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영역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무한정한 전횡은 국민의 정치적 태도를 수동성과 타율성으로 경직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따라서 선거는 주권의 확인과정이 아니라 단지 전열된 정치상품을 소비하는 도덕적 행위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이승만정권은 사사오입과 3·15부정선거 등 다양한 부정의 형태를 통해 선거의 중대한 의미를 시초에서부터 굴절시켰다. 60년 위헌적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71년 선거에서 야당 후보와의 경선에서 위험을 느끼자 비상사태를 일상화시키면서 선거제도 자체를 희화시켰으며, 국회의 기수기화를 통해 민주주의제도를 정권의 지의적 필요성에 따라 '박제화'시키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부어지는 군사정권하에서도 선배의 과업을 이었으며, 국민의 정치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 투쟁이 고양되면서 정권의 반민주주의 전략도 더욱 고도화되어 언론플레이를 통한 매체조작과 군/관/민이 총동원되는 총체적 부정으로 민주의지의 성장에 대한 '꺽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난맥상과 국민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불감증은, 경제성장을 위해 개발독재를 용인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치적 의사의 자율적 형성과 조직화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점에서 그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구와 한국에 있어 구체적인 점점은 다를지라도 시민사회의 자율성확대라는 요구는 공통적인 것 같다. 더우기 그것은 베버가 지적한 목적지상주의적인 관료제의 엄청난 팽창이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중대한 장애가 되고있다는 점에서 더욱그러하다.

현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진보적 의미를 획득하는데에 있어서 관건은, 단지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인단의 숫적인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된 국민의 요구를 시민사회의 각 영역에서 조직화하고, 모든 영역의 결집된 힘을 수평적 연대의 틀로서 묶어내는 것이며, 그 힘을 정치적 의사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전선의 변화를 수반한다. 과거의 전선이 다소 조정적인 단일축을 통해 작동하였다면, 새로운 전선은 다양한 변화의 계기들을 통해 형성될 것이며, 그러한 측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에만이 민주진영은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

다섯번째/교·육·개·혁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과행을 지속하고 있고 '평준화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90년 대통령 지시 이후 18개 시에 고교입시를 부활하였으며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학교 확대정책으로 입시병과 과외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성적의 하향평준화는 형편없는 시설투자와 암기위주 교육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입시위주 교육을 강요하는 고등학교 입시부활을 백지화하고 과외가 필요없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입시열병이 존재하는 것은 학력에 따라 입금이나 승진등 대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토대가 되고 있는 학력간 임금차별, 승진차별을 금지하고 신규임용시 학력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과행을 지속하고 있고 '평준화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90년 대통령 지시 이후 18개 시에 고교입시를 부활하였으며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학교 확대정책으로 입시병과 과외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성적의 하향평준화는 형편없는 시설투자와 암기위주 교육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입시위주 교육을 강요하는 고등학교 입시부활을 백지화하고 과외가 필요없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입시열병이 존재하는 것은 학력에 따라 입금이나 승진등 대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토대가 되고 있는 학력간 임금차별, 승진차별을 금지하고 신규임용시 학력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권 보장의 차원에서 교원의 신분보장은 우선 조건이다. 유치원, 각종학교 산업체 교원들을 정년퇴임시까지 정권이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사재임용제'의 추진을 백지화하며 마찬가지로 민주교수의 해직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재의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좁은 학교와 많은 학생들, 형편없는 교육시설, 법정정원에 15%나 모자라는 교사수, 주50시간에 이르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스승아닌 지식전달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ILO에 가입한 국가 중 교원의 노조결성권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교사들이 단결하여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항의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싸우려면 교원노조결성은 필수적이다.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해직교사 복직을 이루어야 한다.

교육재정을 GNP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학교법인등의 학사운영 간섭 금지가 대학자치보장

민주대개혁안의 교육개혁은 이와같이 입시위주교육 지양,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외에도 △교육재정을 GNP대비 5%이상으로 확대하며, 학부모 교육비부담을 축소한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한다 △교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며,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1천5백여명의 해직교사를 복직시킨다 △완전한 교육자치로 교육민주화를 실현한다 △교육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교육과정과 내용의 민주화로 참교육을 실시한다고 정리된다.

하나씩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면 먼저 교육재정에 있어서는 정부교육부지가 부족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외국의 교육재정은 GNP의 5~7%임에도 우리의 교육재정은 GNP의 3.4%로 학생1인당 교육재정이 선진국의 ¼~⅙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줄이고 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률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만들어 여기에서 걷히는 액수만큼을 교육예산에서 삭감하였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고 교육세를 전액 교육예산에 투입하고 교육재정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환경면에서 현재 대도시 초·중·고의경우 90%이상이 30명을 수용하는 교실에서 51명이 생활하는 콩나물교실이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0.3~0.4평의 좁은 교실에서 학생들은 숨막혀하고 교사들은 수업진행도 원만히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학급정원을 적정 수용 수준인 30명으로 축소하고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해소해야 한다. 조개탄 난로를 사용하는 냉·난방시설을 현대화하며 교육에 필수적인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기자재를 충분히 확보한다. 또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교육기회와 교육비용, 교육시설과 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업학교와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해야 마땅하다.

또한 학교를 지치제화하여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교장 1인에 의하여 전권이 행사되는 현행 체계에서 교무회의의 권한을 확대하여 의결기구화하고 학부모회의·구성과 함께 교장, 교사대표, 학부모대표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방의회에서 이중간선으로 선출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주민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회를 독립의결기구화하여 주민참여의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도록 한다.

대학의 지치를 위해서는 대외적인 독립성과 대내적인 민주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및 학교법인의 학사운영 간섭을 금지하고 교수, 학생, 교직원의 대학운영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총학장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교수협의회를 의결기구화해 권한을 강화하고 교수재임용제 폐지로 교수, 강사의 신분을 보장해 교수들을 학생 시위의 진압을 위해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학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교육을 똑바로 세우고 죽어가는 교육에 새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내용이 민주화해야 한다. 정권홍보, 외국에 대한 허구적 외경심 조작, 분단의식 고취, 노동에 대한 경십, 실생활과 동떨어진 교육내용에서 민족, 민주, 통일, 성평등, 환경과 평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참교육의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 자유발행제를 병행실시하여 획일적 내용을 주입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해야한다. 교육과정의 결정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전문가, 교사, 학부모단체 대표,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위에는 교사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심의기구를 설치하며 개별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은 교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충미 기자>

글싣는 차례

1. 대선의 의미
2. 역대대선 고찰
3. 민족민주운동의 현황
4. 기획좌담－대선에서 청년학생이 할일
보론1－민주주의사회에서의 선거와 올바른 선거관
보론2－타국의 선거에서 얻는 교훈

공 고

1992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함.

－아 래－

1. 시험기간 : 1992. 12. 4(금)-12. 11(금)…6일간
   시험기간은 휴강하며 시험만 실시되고,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 담당교수 재량으로 평가(필답고사, 과제물부과, 기타 객과적인 방법 등으로)
3. 추가시험 :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 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1회 이상 유고 결석한 경우에 한함.
   나. 응시원서 접수시간 및 장소 : 1992. 12. 7(월) －12. 10(목), 해당대학 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 1992. 12. 14(월)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 B⁺이하(학칙 제37조 2항)

1992. 11.

교 무 처 장

199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예정 공고

199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의 개설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공고하나 수강희망자는 신청하기 바람.

－다 음－

1. 목적
   가. 정규학기중 취득하지 못한 학점을 방학기간 중에 취득하게 하고
   나. 하위급의 성적(C⁻이하)에 대하여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며
   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2. 수업기간 : 1992. 12. 14(월)-1993. 1. 6(수)…16일간(토요일 포함)
3. 주당강의실시일 : 주6일간 (정규학기의 주당 1시간 교과목은 통산 16시간)
4. 수강장소 : 본교 이문동 소재 강의실
5. 개설 대상과목 : 1)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교과목으로서, 수강희망자가 30명 이상되는 교과목
   2) 수강 희망신청서에 의하여 개설 예정 과목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수강희망자는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람.
6. 수강신청 최대학점 : 6학점 이내
7. 수강희망과목 조사일 : 1992. 11. 23(월)-11. 26(목)…4일간
8. 조사서 배부 및 접수처 : 소속대학 교학과
9.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1992. 12. 2(수)-12. 4(금)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함.

1992. 11.

교 무 처 장

공 고

1993학년도 제1학기 정규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아 래－

1. 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1) 일시 : 1993. 12. 1(화)-2(수)…2일간, 10 : 00-16 : 00
   2) 장소 : 소속학과 학과장실 및 부전공 지도 교수실
   3) 강의시간표 및 수강신청 OMR카드는 수강신청 당일 소속 학과장실에서 배부함.
   (단, 컴퓨터용 싸인펜은 각자 지참)
2. 수강신청 절차
   1) 수강신청 당일 배부받은 강의시간표의 "수강신청에 관한 주지사항"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 OMR카드를 작성하여
   2) 학과장 및 부전공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장실에 제출함.
3. 재수강 교과목 신청
   1)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 교과목은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며, 재수강 성적은 B⁰를 초과하여 평가하지 못함.
   2) 재수강 신청시 소속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재수강 교과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강신청 미실시자에 대한 규제사항
   1) 본 수강신청에 따라 학급단위를 적정 조절하게 되므로 수강인원이 과다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할 수 없으며,
   2) 추가 수강신청시까지 출석부에 성명이 누락되므로 결석으로 처리되고
   3) 추가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변경의 기회가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수강신청에 관한 주지사항"을 참고할 것.

1992. 11..

교 무 처 장

일본 플루토늄 반입

평화의 가면 벗어 던지다

외대논단

성 황 용
<본교 정외과 교수>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피폭국가라는 것을 구실로, 또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제9조를 구실로 기회만 있으면 평화를 주장해 왔고 핵반입·보유·제조를 금지한다는 비핵3원칙을 표방해 왔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핵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핵확산방지조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 가고 있는 속에서 일본은 비록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대량 운송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세계 여러나라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즉 일본은 많은 반대를 묵살하고 프랑스에서 재처리한 1톤의 플루토늄을 셀부르에서 요코하마까지 1만 7천 해리를 해상운송하는 작전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 양식있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플루토늄은 지연환경과 인류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수 있는 맹독물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맹독성물질을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장거리에 대량운송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제2차대전당시 일본 나가사끼에 투하되었던 정도의 원자폭탄을 제조하는데는 8킬로그램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송하는 1톤의 플루토늄은 125개의 나가사끼형 원폭을 만들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다. 그 위력을 생각한다면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일본정부는 수송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수송루트를 일체 비밀에 부쳐두고 수송도중 일체 기항하지 않고 일본에 직송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발표하고 있고, 미국정부도 일본의 수송계획을 신뢰할만 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의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로로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여러나라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들과 아프리카국가들은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 아카쓰끼의 지국영해통과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하와이 주지사도 미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용기로 운반되지 않는한 플루토늄 수송선의 미국영해통과를 허용할수 없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미국서부주연합회, 괌, 아시아태평양의원연합회의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솔로몬 군도에서 개최된 남태평양포럼이라는 15개국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정부가 플루토늄 수송에 관해 포럼 참가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국가들도 말라카해협과 연근해통과를 허용할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국의 반대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의 수송계획이 세계최고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모든 우발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말로 일축해 버리고, 일본의 핵정책을 정당화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일본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은 원자력에너지계획상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당위성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다.

첫째, 석유자원의 한정성과 불안전때문에 앞으로는 원자력을 주요 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원자력에너지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온실효과를 가지오는 가스방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플루토늄을 재처리 회수하는 것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서 지연자원 및 환경을 보호하는 리사이클시회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원자력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주범의 하나이고, 핵처리는 핵폐기물을 2백배나 증가시킨다. 따라서 일본의 플루토늄계획은 지구환경보존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플루토늄계획에 집착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의도가 연료확보가 아닌 다른 목적 즉 필요한 경우 즉시 핵무기로 전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소련의 붕괴로 동서냉전이 사라지고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서서히 군사 대국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위력증강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가 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또한 PKO법안을 통과시켜 자위대를 캄보디아에 파병함으로써 평화헌법 제9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해외에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과 때를 같이하여 대규모 플루토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상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핵무기없는 강대국의 국제적 입지를 감안한다면 핵 대국화에 대한 열망이 없을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일본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플루토늄이 군사적으로 극히 민감한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본은 핵연료 재이용계획 수행에 필요한 양을 넘어서는 플루토늄은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핵발전능력이나 플루토늄계획을 보면 그 말을 믿기 어렵다. 1백만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1년간 가동하면 23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이 생기는데 현재 일본은 3천3백만킬로와트가 넘는 원전을 가동중이기 때문에 연간 약8톤이 생산되어 매년 1천개의 나가사끼형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핵연료재처리능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핵연료의 10퍼센트도 못되기 때문에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 재처리를 맡길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은 이번의 해상수송을 출발로 매년 3, 4회 매회 1톤 이상의 플로토니움을 수송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2년까지 약50톤이 재처리 반입될 예정인데, 이것은 현재 미국이나 구소련이 핵병기속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량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일본은 고속증식로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핵연료를 태우면 더 많은 새 연료를 생성하기 때문에 꿈의 원자로라고도 부르는 고속증식로 개발은 미국 프랑스 등 핵선진국에서 50년대부터 착수했으나 기술상의 어려움때문에 80년대 중반이후 사실상 개발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만은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93년봄 가동을 목표로 원형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은 원자력에 대한 일본정부의 집착이 어느정도로 강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통한 핵대국화를 지향하기 위해 플루토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정한다면 성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일본역사가 침략의 역사였다는 것, 오늘날 또다시 군사강대국으로 변신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핵기술을 포함한 고도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항시 핵무기개발의 유혹에 빠져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플루토늄 반입에 항의시위를 벌이는 공해추방운동연합회원들

플루토늄반입, 일본엔 군사대국화·연료확보 일석이조

일, 년 8톤 플루토늄 생산, 더 많은 연료위한 고속증식로 개발 중

이책

진실없는 사실, 6공의 언론조작

'언론은 모든 문제의 본질을 밝혀준다.'

실증적으로 사회구성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은 한 사회구성체 하에서 출간되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의 언론을 분석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와 그 위기를 덮어 씌우려는 언론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국내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타국의 것까지 주도면밀하게 분석한 책이 '한국경제의 침몰과 언론조작'(김중한 지음, 일월서각)이다.

언론을 분석하면서 정치, 경제의 제모순들을 살펴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의의를 지니고 있다. 92년도만 보더라도 연초에 일어났던 '부시 미행정부의 방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남한 경제전략 본질의 은닉이라든가 혹은 '일본 PKO 파병'을 두고 나타나는 국내언론보도와 일본내의 언론보도와의 차이성, 'LA흑인 폭동사건'을 바라보는 세계적 시각의 다양화 등을 연구하다 보면 무엇인가 본질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본질부터 상이하게 보도되는 언론의 양태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그 결과로 빚어지는 엄청난 사건—예를 들자면 일본을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경제블럭화추세를 외면하고 미국시장경제로의 편입만을 고수하려 한 한국의 대외 무역적자 중대—을 언론을 통해 감지해 낼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주로 92년을 주축으로 남한과 연계되어 일어났던 여러 굵직한 사건들의 언론보도양태들을 분석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진다. 첫째, 제1장 경제 위기의 근원과 제2장 경제블락과 6공화국 조작구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중심의 시장경제를 탈피하여 블럭화를 통한 '저성장정책'으로 안정경제를 추진해온 데 대해, 유독 '고성장정책'의 고집으로 '무역수지 적자폭 증대'를 초래하게 된 남한이 92년 4월 경제운용정책에서 갑작스레 감속성장을 정책으로 내오게 된 혹막을 국제경제의 조류속에서 파헤쳐 본다.

둘째, 제3장 언론조작의 실상과 한국언론의 구조와에서는 '신문윤리강령'으로 위장된 검찰 만능주의와 '경제관료 제일주의'라는 언론의 관행을 구체적 실례로써 지적한다. 즉 공권력(경찰, 검찰, 안기부)의 절대화를 통해 정당과 사회단체의 개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사회적 상대주의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간파한다. 또한 뿌리깊은 식민통치적 언론구조를 꼬집고 공권력 강화로 나타난 '보도자료'의 절대화에 따른 언론조작 실태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파헤쳐 나간다.

셋째, 제4장 소련사태의 조작과 미국의 정보기관과 제5장 중국의 개발전략과 중추는 한국에서 저자는 특별히 한국과 인접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바라보는 언론매체를 분석해 본다. 소련 사회주의 몰락을 바라보는 이데올로기적 두 시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할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을 분석하여 불명확한 사실을 제인식시켜 준다. 또한 중국에 몰아 닥치는 개혁의 바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의 한계점만을 나타내려는 남한의 근거없는 언론플레이를 꼬집고 있다.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언론을 분석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혹은 옳다고 느꼈던 부분을 다시 분석해 내면서 자본주의하 권언유착의 심각성과 그로인한 경제적 폐해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승찬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소금상자

CD발행기관은 은행이며, 한장당 액면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나 상한선은 없다. CD는 한달평균 총 2조·3조원 정도가 각 은행지점에서 기업대출시 강제로 떠안겨지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잔고는 13조5천억원에 이른다.

기업은 CD를 사채업자에게 팔아 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는 일정 이자로 증권사에 팔며, 증권사는 이를 고객에게 되팔거나 지체상품으로 보유한다.

CD는 발행체계에 있어 현행 '통일규격 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예외가 돼 은행별로 찍히다. 이번 가짜CD과문도 위조자가 진짜CD를 베껴 유통할 경우 증권사가 직인, 사인, 활자체, 용지크기에 대해 발행은행 확인이 없으면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 터

선거보도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는 '선거보도 관행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자는 현직 언론인, 언론학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일시 11월 26일(목) 오후7시
장소 동숭동 홍사단 3층 대강당
주제발표 강명구 교수
(서울대 신문학과)
문의전화 365—0325

6공 과학기술 정책평가 심포지엄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전문노련과학기술분과 등 4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과학기술 정립을 위한 연대회의'가 6공화국 과학기술 정책평가 심포지엄을 갖는다. 6공의 과학기술 정책기조와 기초과학, 정보산업, 환경기술, 농업기술 등을 검토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심포지엄이다.

일시 12월 5일(토) 오후4시
장소 종로성당 3층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

햇 글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며

—세계질서 변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

(김남식, 이태섭, 이선태 지음)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분단의 한반도 현대사가 그 시작부터 냉전시대의 제국주의 세계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아래 쓰여진 책이다.

'탈냉전'이후 세계질서는 어디를 향해가는지, 동북아정세 변화, 남북한 관계, 북한의 현실과 전망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대동, 4천5백원>

일하며 키우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엮음)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야기 만들기 운동'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이른바 우세국 수 만큼 많은 어머니들 세우자리는 취지를 쓰여졌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생활속에서 생긴 여러 사건들이 이야기 식으로 담겨져 있고 우리나라의 비교해 일본의 모육운동과 모육정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탁아운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향점을 제시한다.

<백산, 5천원>

일과 보람이 함께하는 風土를 소중히 가꾸며
이만큼 커왔습니다.

기업의 뿌리를 튼튼히 다져온 지난 39년—
이제 製靴, 패션, 流通에서 化學, 金融, 廣告産業에 이르기까지 금강제화의 8개 企業群은 폭넓은 分野에서 成長의 가지를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금강製靴 株 — 54년 創業. 토탈패션 산업의 先驅者로서 종합패션 및 流通 分野에서 國內 頂上의 위치를 굳우하고 있는 기업.
(株)大 洋 — 73년 創業. 개주얼화의 代名詞인 캔드로바로 出發하여 로열, 레스모아, 개주얼신발의 제조·판매·수출로 成長을 기름하는 기업.
안국화학(주) — 75년 創業. 製靴제조 관련 化學品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
비제바노 — 76년 創業. 最尖端 패션 아이템의 頂上의 질리티를 통해 세계적인 토탈패션 브랜드로 躍進하고 있는 기업.
(株)베잔트 — 84년 創業. 製靴제조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經營하여, 수출용 製靴商品을 취급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
株式會社 三換相互信用金庫 — 89년 창립. 새로운 시대의 金融 서비스업으로 지속적 成長과 금융관련 人材養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기업.
(주) 에드·케이 — 89년 創業.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로서 創立 2년만에 국내 廣告代行社중 11위권내에 오른 엔파워를 자년 綜合 廣告代行社
P. T. ASTRA KUMKANG — 89년 創業. 금강의 인도네시아 現地 合作法人으로 輸出을 위한 세계시장 開拓의 교두보.

금강製靴 株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희망의 경제는…

금융자본의 대부분이 재벌에 집중, 재벌해체가 경제개혁의 첫단계

재벌과 돈 위주의 경제를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

"원가는 비싸져가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적어졌어유. 전세 보증금은 몇백만원씩 올랐는디…요즘같이만 생활한다면 못 살것어유"조금은 자조적인 충청도 말씨의 박순애(50) 아주머니가 남대문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절박하기까지 하다. 90년 4월까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 49.9%(정부발표 10%), 장바구니물가 68.2%가 국민에게 웃음을 빼앗아 간 것이다.

한국경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과연 정부의 말대로 '철없는'노동자들의 임금인상요구가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일까. 우리나라 경제는 무엇이 문제이고 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시민, 중소기업경영자, 교수, 연구원 등의 입을 통해 이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와 개혁의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주범은 땅투기에 정력쏟은 재벌

정영석(석탑노동연구원) 씨는 "86년부터 88년까지 세계적인 3저현상(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경제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때 생긴 이윤을 대기업들은 생산에 재투자가 아닌 부동산에 투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유중성(경실련 정책연구부장)씨도 "재벌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축적하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들러싼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 소수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라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이렇듯 기형적인 형태로 만든 주범이 '재벌'임을 말한다.

3저호황이라는 뜻하지 않은 '떡고물'로 이 시기에 기업가들이 추가로 번 돈을 원화로 환산하면 대체로 20조원에 달한다. 틀림 한국 기업의 성격상 그 돈은 대부분 대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갔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그리고 많을 사람이는데 온 힘을 다쓴 것이다.

환상속의 '주택2백만호'

세계경제악화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로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땅투기에 의한 지가 주택가격의 급등은 국민의 비난여론으로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때 정부는 주택 2백만호 건설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웠고 저임금을 통한 수출시도를 위해 총액임금제 5%인상을 강행했다.

"서민형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40평, 50평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거기다가 대규모주택을 건설하면서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무더기로 수입해 그동안 중동에서 구슬땀 흘려 번 외화를 다 써버렸잖아요" 부유층을 위한 주택건설은 결국 계급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비싼 건축자재의 수입증가가 무역적자를 부채질했다고 말하는 건설업을 하는 이태환씨(49)

정부의 편애가 빚은 '경제 기형아'

6공 경제정책의 그릇된 유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실련이 최근에 발표한 차기정부 개혁안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중소기업은 은행돈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재벌등 특권층만 이득을 누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90년말 현재 금융자본의 45%를 30대 재벌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벌에 대한 정부의 무한한 '배려'는 재벌만을 비대한 한국형 '경제 기형아'를 심화시켰다.

"난 정책같은거 안 믿어. 그게 다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거지. 노태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 실시했어? 실명제 실시유보는 정경유착의 속셈이라구" 그 동네 경제통으로 통하는 종로에서 식당경영을 하는 정희환(60)씨는 민자당의 공약을 비롯, 아파트값 반값등 정책을 믿고 경제신문으로 경제 공부를 하면서 민자당의 '속셈'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어느새 시민들에게 정당의 공약은 '거짓말'로 인식되어 버린 상태이다.

결국 30여년간 형성된 비민주적 관치경제성서하에 형성된 정격유착, 즉 가진자 위주의 관행이 한국경제를 치유불능의 상태로 몰고갔던 것이다.

민주대개혁안 "호평"

그럼 한국경제는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일까.

최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의 민주대개혁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의 경제 개혁방안은 근본 치유책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국연합이 제안한 민주대개혁안은 "과거 부쟁만을 전개하는 재야운동권이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불평에'스런 평가까지 받을 정도로 짜임새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학자, 연구자등 1백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가진자 위주의 관행이 한국경제를 치유불능의 상태로 몰고 갔다.

"민주대개혁안은 생산현장에서 노동하고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 민중의 권익과 이나라의 민주,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수많은 학자, 연구자, 단체들의 조언과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전국연합 상임공동의장 권종대(전국농민회 의장)씨는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끊임없이 개혁안을 풍부화시킬 것이라 말한다.

전국연합의 경제대개혁 방향을 크게 △자주적인 대외 경제관계구축 △독점재벌해체와 경제구조개혁 △금융조세의 민주화 △물가안정 토지공개념 확대 △중소기업육성, 강화 등 5가지로 압축된다.

'민주정부'개혁의 첩경

학계와 시민단체는 "재벌에 기대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선 '민주정부'가 개혁의 첩경"이라 말한다.

전국연합의 민주대개혁안보다는 '강도'면에서 다소 약한 개혁안을 제안한 경실련은 "금융실명제실시, 부기근절을 위한 토지 세제의 강화,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등 금리자율화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차기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전남대 홍성우(경제학) 교수는 "재벌들이 기술개발 투자에는 인색하고 비생산적 부분에 투자하여 불로소득을 보장한 정부와 재벌의 부정부패 구조가 만들었다"고 현정부의 부정을 비판하며 차기정부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석탑노동연구소는 "재벌과 돈 위주의 경제를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재벌 소유 부동산은 정부차원서 임대해 중소기업과 농민들에 무상으로 나눠준다면 가장 빠른 시일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며 재벌해체를 경제개혁의 첫 단계로 꼽았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경제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무도 우리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비관하고 있다.

역대정권의 극진한 보살핌과 국민의 세금으로 비대해진 독점재벌이 1년에 5천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수렁에 빠뜨린다면 그리고 '제멋대제'가 한국경제의 마지막 회생 기회라면 일한만큼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국민들의 당연한 외침이 아닐까.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 공동기자단, 정리 : 사회부>

공약(空約)으로 끝난 보통사람의 시대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12월18일(금)로 공고됨에 따라 각 당 후보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분주해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 임기를 사실상 한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6공은 정권이양 작업과 함께 경부고속전철 건설등 막바지 공약사업을 이행(?) 하느라 한창이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을 비롯하여 영종도신공항 건설, 제2이동통신 사업등 6공말기의 공약사업들은 정치자금조성시비에 휘말려 들면서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비단 정치적 의혹을 지닌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약사업을 기준으로 6공 5년을 평가해 볼 때 그리 긍정적인 평가는 되지 못한다는것이 일반적인 여론일 것이다.

87년당시 내건 6공의 공약중의 하나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이다.

그러나 과연 6공은 집권 5년동안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었는가?

보통사람의 실종시대

6공이 내건 공약은 총 4백59개이다. 현재 정부는 이 방대한 공약중 98%를 이행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98%이행이라는것은 현재 추진중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약 그대로가 98%이행됐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등의 구조는 무언가 뒤바꿔도 크게 뒤바꿔져 있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98%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6공이전보다 더 퇴보했다고까지 한다. 그렇다면 지켜지지 못한 2%의 공약이 문제인 것일까?

6공의 가장 대표적인 불이행 공약은 중간평가 거부와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이다.

6공 출범 이후 제조업·중소기업등 대규모 도산 급증

경제공약 실패, 1백억달러 이상의 무역적자 초래

그것은 6공의 핵심공약 사업들을 짚어보면 그 해답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6공의 실정을 꼽을때 가장 먼저 꼽는것이 경제이다. 그러나 6공 출범당시 공약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더 경제발전에 힘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부분에 있어 6공의 국정운영 방향은 '물가안정'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물가가 내려가기는 커녕 사상 최대의 물가인상을 기록했으며, 애초에 물가인상의 주요원인인 지하경제를 뿌리뽑는 방법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그것 역시 90년 3월 '실명제 제검토'로 번복되면서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경제부분의 주요공약중 또 하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이다. 제조업 분야는 대부분 6공의 무분별한 산업합리화 정책과 맞물려 급격하게 몰락해가고 있는 상태이며, 중소기업 역시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하루에도 몇십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해 가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공약의 실패는 1백억달러 무역흑자에서 1백10억달러 적자국으로 전락하게 했으며 외채는 4백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이외에도 6공은 농가소득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농가소득보다 농가부채율이 더 급증했으며 수입개방의 확대등으로 이농·탈농 현상이 가속화 되고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이 아닌 구조개악을 초래했던 것이다.

6공의 대표적인 공약(空約)성 공약은 중간평가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일 것이다. 상당부분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들 공약은 투덕한 근거제시 없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불안등의 이유로 백지화 시켜버렸다. 그나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만 구성한 채 파행적으로 굴러오고 있다.

공약불이행이 몰고온 대중투쟁

6공의 공약불이행은 급기야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대중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서울 택시노조 파업사태로서 그것은 처음에 교섭위원 매수사건으로 시작되었으나 근본적인 불씨는 바로 6공의 택시공약 사업의 불이행에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택시 월급제 실시, 기본급의 생계비 수준으로의 현실화, 개인택시 제도의 개선등 택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6가지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그중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택시제도개선 문제는 택시노조 서울시지부가 전면파업을 단행한 이후 택시제도의 개선은 곧 교통문제해결의 시발이라는 여론을 확산시켰으며, 그것은 또 다시 각당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택시제도 개선 외에도 지지제·금융실명제 실시등 6공의 중요한 불이행 공약들은 올해 들어서만도 굵직굵직한 국민대회등 대규모 대중투쟁을 통반하면서 차기정권 담당자들에게 공공연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6공의 공약사업 평가는 단순히 정권말기의 '뒷북치기'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또다시 차기정권에 의한 공약(空約)성 공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것이 공약(空約)이 아니라 진정한 공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대중투쟁의 활성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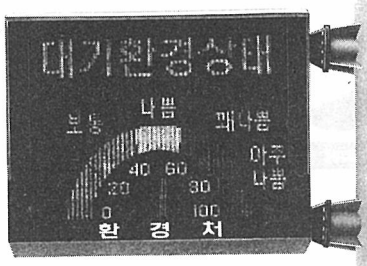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은 바로 그러한 국민대중들의 정치적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영향력있는 대중투쟁의 공간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사회부>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설계 2과
이주한

이주한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둘러야만 했다.
통근버스가 시청앞을 지나칠 무렵,
여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시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엔진설계와 제어부문…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번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번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을 가리키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늘 씁쓸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도 고쳐질 수 있으리라.

창사 25주년 HYUNDAI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③

좋은 환경, 좋은 차
HMD 現代自動車

91년 5월 '어머니, 당신의 아들' 상영 당시 서울캠퍼스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다.

□6공화국 문화정책의 허실과 문화대개혁 방향 <1> 문예부문

간섭과 통제아닌 자율과 지원으로

6공, 선포식 문화행정에 문화운동 탄압 극심

문화악법철폐 · 민간주도 남북문화 교류 · 예산확충 절실

우리 문화현실이 서구문화처럼 되어가고 있으며 소비 · 퇴폐 · 향락문화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6공화국은 민족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면서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문화운동을 탄압해 왔다.

대선시기를 맞아 '6공화국의 문화정책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서 왜 지금 문화개혁이 필요한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18일(수) 부터 20일(금)까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주최로 열린 '문화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본보에서는 이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문화대개혁의 내용을 문예부문과 교육 · 언론방송 부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편집자>

6공화국의 문화정책은 한 마디로 '간섭과 탄압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문예운동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였으며, 문화부 신설 이후 내세웠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문화부에서는 매년 '연극 · 영화의 해'니 '춤의 해'니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정책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포식 문화행정만 거듭해 오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문화적 소외상태에 놓아두고, 날로 더해가는 상업 · 퇴폐문화를 그대로 방치해 온 것, 그러면서도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탄압하는 것이 6공화국의 문화정책이었다. 여기에서는 '문예부문'에 대한 6공화국 정책의 허실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예술문화관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 정부에서 문예운동을 탄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각종 악법이다. 걸핏하면 영화상영을 불허하고 필름을 압수하며, 예술인들을 구속하는 등의 탄압을 지행하는 것도 이러한 악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으로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전심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심의가 아니라 '검열'처럼 되어 있으며, 심의를 거친 작품은 예술가의 원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삭제나 수정지시를 받게 되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품의 공개 자체를 불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검열적 성격을 띤 심의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공연법의 경우에는 90년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연극, 음악, 무용 공연에 대해 사전대본심의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시행령과 공연법이 차이를 보이며 사전대본심의가 사실상 이루어 지고 있어, 공연법에서의 대본심의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검열성 심의는 제작자 독과점에 의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작과정과 유통구조가 전혀 다른 두 항목을 묶어 놓고, 불건전한 비디오물에 대한 세간의 좋지 않은 여론을 이용하여 음반제작을 간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반사 등록에 있어 시설기준 항목 때문에 음반업이 과잉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는 정부의 음반사 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며 부당한 심의의 예비적 과정이 음반제작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화법은 89년, 영화법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1년에 한편, 영화제작비의 10%를 예탁하면 영화제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다. 음반 · 비디오물에서도 문예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한 시설기준은 철폐되어야 하며, 영화법 등록 예외규정에 16밀리 이하의 소형영화제작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소형영화에 대한 탄압을 없애야 겠고, 음반 · 비디오물 제작자 예외규정에도 비상업적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을 포함시켜야 한다.

통일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부 발족 이전 정부의 통일문화정책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통일열기를 억누르는 한편, 민간차원의 자발적 문화교류제의를 활용하면서 이를 통일원 창구를 통해 통제 · 조정하는 입장을 관철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90년에 발족한 문화부는 문화정책의 기본틀 중 하나로 남북한 협력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문화의 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정책들은 남한 문화가 북한문화보다 우월하다는 냉전적 대결의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전체 문화부 예산중 통일문화정책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 정부가 통일에서 문화영역의 중요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부는 행사위주의 실천이나 즉흥적 대북제의 남발을 일삼았던 것에서 벗어나 남한 내에서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일의 분위기와 의지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분위기 창출과 조건 마련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북한 문화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민간차원의 북한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정보와 자료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교류이전에 북한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부문의 공동학술활동이나 문화활동 개최, 국제기구 행사 공동참가 등 남북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준비로 민족공동의 어문활동이나 역사서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역대 정부의 노동문화정책 역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고, 앞으로 치밀하고 고도화된 형태의 탄압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요구를 수렴하고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며 문화창조를 진흥 ·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과 목적을 가지고 강제하고 관철시키려 하는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전국민으로부터 노동자, 특히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고립시키고 노동자 의식을 획일화하며 노동자들의 올바른 사고형성을 저해, 노동자의 문화적 요구와 문화창조적 노력을 억압하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원과 정부차원의 문화사업 집행의 객관성과 공평성이 제도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온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한 법이 마련되어 '노동속에서 문화가 창조되는 사회적 기풍과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문화운동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 문화공간을 설치,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순이익금 일부를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 문화기금으로 투자하여 노동자들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문예진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예에 대한 욕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통제나 간섭은 부당하며 지원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부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예진흥원 예산의 50% 이상이 문화부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 문화부 예산이 지금의 두배 이상으로 증액되어야 문화부는 그 나름대로 자중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예진흥 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 문예진흥원은 문화부로부터 부조건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처럼 간섭과 통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본연의 문예진흥 사업 수행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문예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6공 출범 당시 공언한 바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황효순 기자>

91년 5월 '어머니, 당신의 아들' 상영 당시 서울캠퍼스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있다.

□전시회이야기

서울, 신방과 보도사진부 제6회 정기사진전 '한강'개최

서울캠퍼스 신문방송학과 보도사진부에서는 '한강'이라는 주제로 제6회 정기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지난 19일(목) 부터 21일(토)까지 사진전이 개최된 학생회관 전시실에는 모두 37점의 사진이 선보였다. '민족의 젖줄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강의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그 주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담고자 했다'는 사진전의 기획의도에 맞게 양평, 영월, 제천 등에서 찍은 한강 주변의 판자촌이나 공사장풍경, 고수부지의 밭을 일구는 한 할머니의 모습 등은 '도심의 한강풍경'에 익숙해진 외대인들에게 한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사진전은 본교에서 개최되기 전에 9일(월) 부터 11일(수) 까지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추운 날씨 탓인지 전시실을 찾는 외대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아쉬움이 남지만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사진이 아니라, 한 장의 사진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하고 진솔한 모습을 담아 사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는 보도사진부 한 회원의 말처럼 더욱 더 활발한 활동과 외대인들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공연이야기

서울, 민속악놀이반 제9회 정기공연 '바로 너였구나'가져

서울캠퍼스 '민속악놀이반'은 지난 17일(화) 대강당에서 제9회 정기공연 '바로 너였구나./'를 개최하였다.

자신들의 동아리 활동을 소재로 하여 그 속에서 고민하고,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풍물굿으로 신명나는 풍물소리와 베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진 한마당이었다.

집안문제, 대학생활에 대한 갈등, 공연과 과업일정 등으로 고민하던 회원들이 서로를 챙겨주며 힘을 얻고, 외대발전을 위한 투쟁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그린 이 공연은 약 1백명 가량의 외대생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반 연극도 그러하지만 특히 관굿이나 마당극과 같은 경우는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공연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공연이었다. 외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연의 내용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된다면 공연은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리라 본다.

용인 FBS 제7회 방송제 열어

지난 17일(수) 용인캠퍼스 지연대 강당에서 제7회 FBS 방송제가 열렸다. 방송국원들의 한할여에 걸친 준비에도 불구하고 객석에는 드문드문 빈 자리가 보였으나, 행사를 지켜 본 관객들은 시종일관 무대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FBS 방송제 그 일곱번째'는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던 1부와 본격적인 행사가 열린 2부로 구성되었다. 우선 대선과 언론, 학생운동의 관계를 조망한 보도기획 '그 날이 오면'은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내긴 했으나 영역지제가 광범위해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어 꽁트 '내 배꼽 돌리도'에서는 커다란 엑정회면에 장롯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코믹하고 생생하게 그렸다. 그러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 거부감을 주기도 했다. 종합구성 TV 드라마 '돈, 욕망, 해방 그리고…'는 압구정동 오렌지족의 무분별한 문화를 통해 신세대의 소비문화를 꼬집는 순서였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어 주제의식에 진지하게 접근했다.

이번 방송제는 내년부터 정규 방송화일 영상매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기술적인 면의 성장을 보여 주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주제의식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했다는 평을 얻어, 이후 보도성의 강화와 좀더 진지한 주제 의식 표현 등의 과제를 남겼다. 그러나 행사 주체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외대인의 문화풍토가 더욱 안타깝다. 이후 방송제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여 외대인의 동교리, 하교길에 외대인의 발길이 닿는 구석구석까지 가장 절친한 벗으로 자리해야 하겠다.

신나는 공동체놀이

<9>모의선거

한달도 채 남지않은 대통령 선거에 발맞추어 모의로 선거유세와 후보선거를 해봄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놀이이다.

우선 한 조당 10~20명 정도로 구성한 뒤 선거내용(선거의 종류)을 정한다. 유세에 필요한 물품을 즉석에서 구한 뒤 각 조별로 입후보자, 선거유세반, 기획실, 제작실, 물품조달등 역할분담을 한다. 그리고 선거유세의 내용과 전술을 짜고, 동아리별로 유세를 한다. 유세방식은 각 입후보자의 성격에 맞게 짜되 연설, 구호, 노래, 유인물, 대자보 등의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다. 유세후 직선제 선거방식을 통해 선출하거나 깃발쓰러뜨리기, 패쌈놀이 등의 방법으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도 있다.

선거유세를 통해 조직적, 계획적 발표능력을 높이고, 그 힘을 경험하게 되며 공정선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와 실패한 이유를 진지하게 평가한다. <문화부>

문화 응답샘

그 많던 심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지음

전쟁의 비극, 중산층의 삶, 여성문제등을 소재로 글을 발표해 온 작가가 자전적 생애에 바탕을 둔 성장소설을 발표했다. (웅진. 4천5백원)

꿈을 비는 마음(a bright, new dream)

—문익환 지음

문익환 선생 노벨평화상수상을 위한 후원회에서 그의 평화사랑을 지향하는 뜻이 담긴 시편을 번역하여 세계에 알리고자 시집을 간행했다.

대부분 시로 구성되어 있는 구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인으로 다시 태어난 문익환 선생의 시 세계를 우리말과 번역어로 감상할 수 있다. (실천문학사. 3천5백원)

일본정신의 어제와 오늘 야스쿠니 신사

—노길호 지음

이 책은 일본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가 안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서 현재의 일본사회 일면을 이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쓰여졌다. (구월. 3천8백원)

호루라기

—김하경 외 5인 지음

작가들이 2년여에 걸쳐 전노협신문에 발표하였던 짧은 이야기들과 새 작품들을 보태어 책으로 묶었다.

그동안 현장의 투쟁만을 그릇에 담아내려 한 도식화되고, 재미없는 꽁트를 극복한 작가들의 결실을 1천만 노동자는 물론이고 4천만 민중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과학과 사상사. 4천3백원)

<고침>

593호 임풍문학상 평가기사의 필자 서명아군은 임풍문학상 준비위원장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말의 쓰임새 (229) 자유케→자유롭게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은 '—롭다' '—스럽다'를 붙여 그림씨(형용사)로 쓰인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하다'를 붙인 '자유케'와 같은 표현은 우리말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다'가 옳고, '이룸하다'와 같은 표현도 '말하다'로 써야한다.

용인캠퍼스동아리 <우리말가꿈터>

주간 취업정보 안내

추천의뢰처	직 종	인원	자 격 조 건	비 고
(주)대화전자	해외영업	○명	· 영어영문, 무역학	11월27일이전
동우해운주식회사	해운, 항공	남녀○명	· '93. 1. 1. 근무가능자	11월25일이전
상지엔터프라이즈	기획, 경리 투자개발	남녀○명	· 컴퓨터, 외국어 능통자	11월28일이전
경원산업주식회사	사무직	○명	· 전산학, 인문사회계열	11월30일이전
성원개발주식회사	사무직	○명	· 상경, 법정계, 군필자	12월5일이전
남일전지상사	수입및관리	○명	· 전공불문, 영어능통자	12월3일이전
신아상사주식회사	무역직	2명	· 영어에 자신있는 자	11월27일이전
(주)인영트레이딩	무역직	○명	· 패기, 영어능통, 운전	11월26일이전
유성무역주식회사	비서및 사무	3명	· 영회화, 타자, 컴퓨터	11월25일이전
대평실업	무역직	여2명	· 영어회화, 용모단정	11월25일이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취업보도계로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바람.

학 생 처

재학생과정 모집요항

본 외국어연수원에서는 재학생으로서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니 적극적인 호응 바랍니다.

1. 모집학과, 인원 및 시간

학과	과정	교육시간	인원
영어	초급(B-1)	19 : 30-21 : 20 (월, 화, 목, 금)	각반 25명
	중급(A-3)		
	*초급(B-2)		
	*중급(A-4)	17 : 30-19 : 20 (월, 화, 목, 금)	
	*중급(C-1)		
	고급영어독해		
	TOEFL		
일어	초급		
	중급		

2. 교육기간 : 봄 학기—'93. 2. 1(월) - 4. 9(금) (10주)
   여름학기—'93. 4. 12(월) - 6. 18(금) (10주)
   가을학기—'93. 8. 2(월) -10. 8(금) (10주)
   겨울학기—'93. 10. 11(월) -12. 17(금) (10주)
3. 지원자격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
   *1) 중급(C-1)은 영어전공자를 위한 과정임.
   2) 초급(B-2)는 B-1을, 중급(A-4)는 A-3과정을 각각 수강한 학생을 위한 상위과정으로 여름학기에 개설함.
   3) 고급영어독해는 대학원진학, 취직, 고시 준비과정임.
4. 선발방법 : 등록순 마감
5. 수 강 료 : 140,000원 일시납
6. 등록기간 및 장소 : 1992. 11. 23(월) 부터 교학과
7. 기 타 1) 강의시간표 및 교재는 개강1주일전 연수원교학과 게시판에 공고함.
   2)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개설되지 않을수도 있음.
   3) 과정설명 및 교재는 별지안내서 참고 요망.
   *문의전화 :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61-4174, 4175

1992. 11. 18

외 국 어 연 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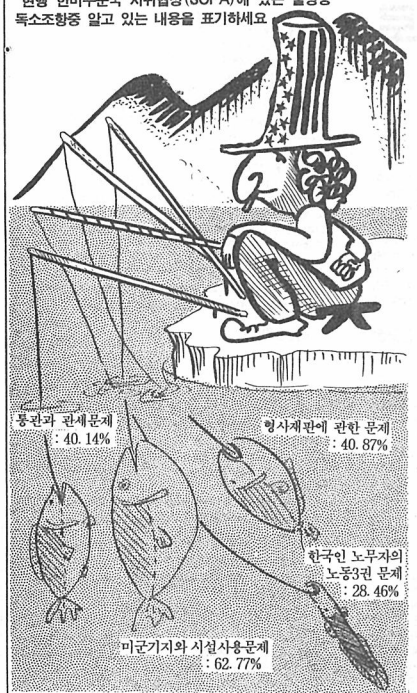
재학생과정 및 교재안내

외국어연수원

학과	과정	과 목	주시수	학 습 내 용	교 재
일어	초급	독해 I	2	문법의 기초를 위히고, 간단한 문장의 내용을 파악한다.	일본어코보(I, II)
		문형연습 I	2	기본적인 문형을 연습시킨다.	
		청취력 I	2	보통속도의 일본어 청취력을 키운다.	일본어코스 담당교수 준비
		회화 I	2	일상생활에 필요한 회화능력을 기른다.	
	중급	독해 II	2	보다 복잡한 문형의 교재를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일본어 표현문법 (I, II)
		청취력 II	2	보다 속도가 빠른 고도의 내용의 교재의 듣기를 훈련한다.	N.H.K News, Drama
		회화 II	2	귀듣나게이션 능력의 함양을 도모한다.	담당교수 준비
		회화 III	2	Discussion, Speaking연습을 한다.	
영어	초급 (B-1)	Speaking	4	기본회화과정. 모든 수준의 영어회화에 필요한 기본문형을 가르친다.	Side by Side I
		Discussion	2	발화기에서 학습한 것을 반복 학습하며 관련된 주제가 주어진다.	Teacher Prepared
		Listening	2	일상회화의 듣기연습 및 발화기를 소개하는 초급과정	Hearsay
	중급 (A-3)	Speaking	4	Native Speaker의 영어회화를 체계적으로 연습하게 한다.	Side by Side 2nd Ed. Book II
		Discussion	2	교수에 의해 준비된 다양한 주제를 소그룹별 혹은 반전체가 토론한다.	Teacher Prepared
		Listening	2	중급과정으로 듣기능력과 실용적인 영어 사용 능력을 배양한다.	Person to Person I
	초급 (B-2)	Speaking	4	문형에 입각한 영어회화를 연습 시킨다. 초급 및 초·중급에 적합	Side by Side 2nd Ed. Book 2
		Discussion	2	발화기 수업내용에 관련된 주제를 토론한다. 주제는 교수에 의해 소개됨.	Teacher Prepared
		Listening	2	실용영어에 대한 듣기 및 그 사용을 연습시키는 초급과정	Person to Person I
	중급 (A-4)	Speaking	4	Native Speaker의 영어회화를 체계적으로 연습하게 한다.	Side by Side 2nd Ed. Book IV
		Discussion	2	다양한 뉴스를 듣고 그룹별 혹은 반전체가 토론한다.	AFKN/신문
		Listening	2	중급과정으로서 듣기능력과 실용 영어 사용 능력을 배양한다.	Teacher Prepared This is a Recording
	TOEFL	L/C	4	실청 실작	최신 TOEFL 실전문제 아카데미 TOEFL
		Grammar	4		
	고급 영어 독해	독해	8	영어가 이해되나 매끄럽게 해석이 아니되는 사람 또는 영어를 편안과 하지만 한단계 더 깊이 독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취직, 고시준비용임.	English Studies Series 1, 2권 (연합출판사)
	중급 (C-2)	Speaking	4	Native Speaker의 영어회화를 체계적으로 연습하게 한다.	Side by Side English Grammar Through Guided Conversations Book Two
		Discussion	2	발화기에서 학습한것을 반복 학습하며 관련된 주제가 주어진다.	
		Listening	2	기본적인 영어의 듣기 및 그 사용을 시키는 기본과정.	Person to Person II

그림 돋보기 -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점 인식도

현행 한미주둔국 지위협정(SOFA)에 있는 불평등 독소조항중 알고 있는 내용을 표기하세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50년 동안 살인, 강간, 마약밀수, 강도 등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

본보에서는 지난달 28일(수) 한미군 병사의 한국여성 윤금이씨 살인만행사건을 계기로 지난 21일(토) 본교 서울캠퍼스에서 총 1백37명의 외대인을 대상으로 미군주둔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동두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을 묻는 질문에 미군 주둔으로 파생하는 폐해의 심각성이 크다는 응답을 했다(54.83%) 또한 미군의 살해방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끔찍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게 나왔다(31.61%) 이는 미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의 표출인 동시에 약소국의 폐해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계속 지탱되는 미군범죄가 극성을 부리며 수그러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한미주둔국지위협정(한미행협 SOFA)의 불평등 독소조항과 한국정부의 비자주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를 우선으로 꼽았다.(62.77%) 이 조항에서 미군은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고 손상등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내용이며 한국민에게 심각한 재판권 피해 및 생존권의 위협이 된다. 또한 한미행협의 불평등 조항 중 가장 대표적인 '형사재판에 관한 문제'에 대해는 40.87% 수의 학생이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은 한국정부가 사건 발생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를 서면요청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저절로 미국측에 넘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행협 체결 이후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군측은 재판권이 넘어온 미군범죄에 대해 본국송환이나 가벼운 처벌로 그쳤을 뿐이다. 결국 24년만인 지난해 1월에 협정을 개정한 결과 한국정부는 미군의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다도 재판권을 행사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가 문제이다. 이번 윤금이씨 사건을 통해서도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윤금이씨 사건이후 경찰은 미군측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골바로 미군측에 넘겨 주었다.

또 '통관과 관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40.14%로 나왔다. 이 조항은 미군 한국에서 세금면제와 출입국 자유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다량의 물자가 무관세로 들어와 국내 시장에 방출되는 폐단이 생긴다. 한미간의 불평등 조항으로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3권 문제'가 있다(28.46%) 이 조항은 미군당국은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 관리할 수있으며 한국인 노무자를 지의로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런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을 볼때 한국정부는 미국측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사항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한미행정협정의 호혜평등에 입각한 개정으로 한미예속 관계를 타파해야 하는 것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52.27%) 이번 윤금이씨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요구해야 한다. (24.43%) 미군범죄 피해자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한다. (12.50%) 주한미군을 철수도록 한다. (8.52%) 순위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생은 미군에 의해 처참히 죽어간 윤금이씨의 한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여학생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에 적극 참여한다. (32.69%) 주한미군의 폐해를 주변사람들과 얘기한다. (25.64%) 사건해결 책임단체에 항의전화를 한다. (17.94%) 등의 방법이 얘기되었다.

윤금이씨는 주민등록증조차 없고 오직 평택 보건소가 발행한 보건증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녀의 존재를 나타냈다. 앞으로 제2의 윤금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화를 반드시 실현해야만 할 것이다.

<점공명 기자>

<그림 이승찬기자>

설문조사 결과

질문1 동두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접하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미군 주둔으로 파생하는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 85명 (54.83%)

미군의 살해방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끔찍했다 : 49명 (31.61%)

중증 있던 일이라 그러려니 했다 : 5명 (3.22%)

미군문제가 아닌 정신이상자의 범행으로 생각되었다 : 6명 (3.87%)

기타 : 10명 (6.45%)

질문2 현행 한미주둔국 지위협정(SOFA)에는 여러가지 불평등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알고 있는 내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 미군은 한국내의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고, 손상 등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면제 : 86명 (62.77%)

형사재판에 관한 문제 — 한국정부가 사건 발생 15일 이내에 재판권 행사를 서면요청하지 않으면 재판권이 저절로 미국측에 넘어가도록 규정 : 56명 (40.87%)

통관과 관세문제 — 한국에서 세금면제와 출입국 자유 : 55명 (40.14%)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3권 문제 — 미국당국은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 관리할 수 있다. 한국인 노무자를 지의로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 : 39명 (25.46%)

질문3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요구해야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한미행정협정의 호혜평등에 입각한 개정으로 한미예속관계를 타파한다 : 92명 (52.29%)

윤금이씨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요구한다 : 43명 (24.43%)

미군범죄 피해자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한다 : 22명 (12.50%)

주한미군을 철수토록 한다 : 15명 (8.52%)

기타 : 4명 (2.27%)

질문4 이 사건을 바라보며 대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에 적극 참여한다 : 51명 (32.69%)

주한미군의 폐해를 주변사람들과 얘기한다 : 40명 (25.64%)

사건해결 책임단체에 항의전화를 한다 : 28명 (17.94%)

기타 : 11명 (7.05%)

설문조사 대상 : 서울 · 용인캠퍼스 학생 1백37명

조사일시 : 11월21일 (토)

윤금이씨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명수당 明水堂 참 우리말을 찾아내자

교문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왼편 길에 우리 외대 우리말 연구회의 학생들이 마련한 게시판이 있다. 나는 이따금 이를 눈여겨 보면서 내가 우리말이라고 써온 것이 참 우리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이 모임 학생들에게 마음속으로 늘 고맙게 여긴다.

나도 우리말 연구회 학생들의 장한 뜻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부심코 쓰는 잘못된 얼빠진 말이나 제뜻을 바로 새기지 못할 말 몇마디를 적어본다.

우리의 무의식중의 망발은 국호를 약칭이랍시고 '한국'(韓國)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국호인 '대한민국'의 핵심글자는 큰 '대'(大) 지이지 결코 '한'(韓)이 아니다. '韓'이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 겨레를 상징해 왔다고 우기거나, 그 밖에 시체(時体) 말로 잔머리를 굴려 '한국'이라는 호칭이 이러저러한 연유로 마땅하다고 건강부회하는 쌀개빠진 무리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일 것이다.

'한국'의 왜음(倭音) '간꼬꾸'는 감옥(監獄)의 '간고꾸'와는 구별하기 힘든 동류음이다. 나라 이름까지도 왜인(倭人)들의 간교에 놀아나고 있다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중세 조선왕조를 시골 동리의 일가붙이쯤으로 비하하여 이조(李朝)라고 칭한 왜인들의 농간에 성능좋은 기계처럼 잘도 놀아나고 있는 얼빠진 우리의 처지가 새삼 떠오른다.

우리 국호 '대한민국'의 간칭은 대한(大韓)이나 대국(大國)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의 '大'자는 '大學'의 '大'자 이상으로 뭘 래야 별수가 없다.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中'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나라를 화국(華國)이라고 약칭하지 않고 중국(中國)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대한' 또는 '대국'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애국가의 "대한 사람 대한으로"는 집어둔다하더라도, 안중근의사의 휘호에서 그 의수관지(義手款識)가 '大韓國人 安重根'에 다음하고 있음은 못난 우리 후대들이 모름지기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우리 전통적인 국호 조선(朝鮮)을 두고 흔하들 인도의 아무개를 맹목적으로 좇아 제법 시적(詩的)인 표현인냥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연한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영자(英字)로 'morning calm'으로 덧붙하기까지 한 짐지를 보기도 한다.

무심코 쓰이는 얼빠진 말들 제 뜻을 바로 새겨야

이 균 성 <법학과 교수>

조선이라는 국호가 그런 맥빠진 뜻을 지닌 칭호는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조선'에다 새날 아침의 생기발랄하고 소위 욱일승천(旭日昇天)의 희망찬 국운진작을 기정사실로 하는 당찬 확신을 담았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면, 낮이 훤히 밝았는데도 게을러빠져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족속들만 있거나 하루 밤새 일패도지(一敗塗地)하여 무주공산이 되었거나 하지 않고서야 그 말에 제대로 어울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땅이 반도(半島)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바로 실세에 부합하는 용어로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왜인(倭人)이 지기 나라 땅이 섬(島)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땅과 같이 대륙의 정기가 온몸 모여들고 삼방(三方)이 대해(大海)로 죽죽 뻗어나는 땅을 지기내 땅의 반쪽 밖에 되지 않은 하찮은 땅이라는 뜻으로 도이혀 말 'Hal-binsel'을 옮다구나 하고 빌어 조작해 낸 말이 바로 반도(半島)인 것이다.

이탈리아나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이 비한자어권(非漢字語圈)에서 지기들 나라 땅을 반도(半島)라고 표기한다고 해도 조금도 개의할 것이 없는 나라들과는 달라, 한자말을 쓰는 우리 중에 말뜻을 알고도 남이 우리의 은 나라 땅을 반도라고 하는데 분기탱천(憤氣撑天)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나라의 얼을 팔아먹을 황견자(黃犬子)일 것이다. 지혜로운 우리 외대의 우리말 연구회 젊은이들이 이 반도에 갇음할 얼이 담긴 용어를 창안해 주기를 바란다.

무릇 말이란 그 나라의 마말한 얼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저 개짖는 소리와 진배없는 것이다.

정검다리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과 파업중 출결처리에 관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총 이수학점은 법과대학은 최저 150학점, 그 나머지 단대들은 최저 140학점을 필요로 한다.

먼저 서양어 · 동양어 · 서양학 · 동양학대학과 정책과학 · 상경 · 사회과학대학, 지연과학대학의 학생은 1, 2학년 교양과정에서 38학점, 계열기초를 포함한 전공과정에서 69~8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1~33학점은 부전공 및 자유선택으로 이수한다.

사범대학은 교양과정에 30학점, 전공과정에 67~73학점이 배분되어 있으며 부전공 및 자유선택(21~27학점)외에 교직과정의 16학점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인문대학은 교양과정에 배분되어 있는 이수최저학점이 42학점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전공과정의 이수학점은 68~77학점이다.

법과대학 학생은 교양과정에서 42학점, 전공과정에서 87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유선택으로 21학점을 이수하여 총계가 15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지난 11일(수) 함의 · 조인된 '학교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중 단기사안 내용에 따르면 92년 2학기부터 동계계절학기가 개설된다. 방학중에 실시되는 계절학기는 재수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졸업연한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를 접수하여 수강자가 30명 이상인 과목일 경우에만 계절학기로 개설되며 이전에 취득했던 해당과목의 학점이 C°이하인 학생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하계계절학기에 비해 이번 동계계절학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종전에는 개설과목이 교양영역에만 한정되었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전공 · 교양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금)부터 21일간 진행되었던 서울캠퍼스 수업거부와 관련하여 출결처리가 각 교수의 처분에 맡겨 있어 많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파업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때의 출결처리는 바로 출석미달규정에 결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전체교수에게 총장명의의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동특금문제로 동맹휴업했던 용인캠퍼스 학생들도 불이익 당한 바가 없고 또한 지금은 학원3주체가 모두 외대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출결석처리는 파업기간중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뤄져야 한다.

눈과 머리에서 입과 귀로
개강 : 12월 1일
오리엔테이션
12월 1일 AM : 7시 PM : 8시
인터뷰 : 마지막주
日本語 회화 ★듣고→말한다 →듣고→쓴다 체험학습 60分 ★한인, 일인연계강의
I.M.I 영어회화 ★ 전원 Native speaker ★ Level 5단계 각 3개월
컴퓨터 영어회화
보고, 듣고, 느껴서 입으로 줄줄 쏟아지는 기적의 영어학습으로 아주 쉬우면서도 흥미있게……
Host Family가 되어 보십시요!!
세계 각국에서온 외국인과 1, 4주간 같이 생활하면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E.I.I KOREA
문의 816-2030
일미일외국어학원
노량진 전철역 옆 일미일B/D
☎817-9362·3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B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 · S.L.E코오스(각반 12명 정원/강사진원 석·박사출신 미국인/12달완성) 미국 생활영어 · 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 LADO회화
ENGLISH영작, TIME·영어숙해·독해) · TOEFL · 종합영어 · 모작점TOEFL종합반 · GRE·GMAT · 문법·영어실력기초 VOCABULARY · AFKN청취 · TOEFL L/C·무역영어
S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훈련하는 日本語 · 표준일본어 · NHK 일본어청취 · 러시아어 · 러시아인회화 프랑스인회화 · 독일어 · 중국어 · 중국인회화 · 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독수훈련원 · 최신어학교수법 · 외국식 학습분위기 · 최신시설 · 전원냉방 · 수료증취득, 과학적이고 심층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쳐 LEVEL배정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딩 274·4000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끝 한빌딩 515·4020
I CAN DO 파고다 외국어 학원

종로2가 734-2442 종각 옆
시사영어학원
TOEFL 600
오전반 : 9:40 – 12:40
저녁반 : 7:00 – 9:50
(실전반)
GRE 2000
오후반 : 2:00 – 4:00
저녁반 : 7:00 – 9:00
GMAT 700
저녁반 : 7:00 – 9:00
M.A ENGLISH
대학원진학종합반
저녁반 : 6:30 – 9:30
통역대학원입시반
새벽반 : 6:50 – 9:20 (입문반)
오후반 : 3:00 – 6:00 (입문반)
저녁반 : 6:00 – 9:00 (입시반)

교사임용고시대비
방학 특강
● 내년부터 국, 사립구분없이 완전공개전형실시
● 91년최고적중 (40문중 39문적중)
● 논술, 면접 ➡ 100%적중
● 현직 교장, 교감, 교사 선생님께서 적극 추천하는 정통과 명강의!
전공특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타 전공과목은 2월부터 강의시작)
개강 1차/12月14日 2차/12月28日 (오전, 오후, 야간)
★강의실 관계로 선착순마감

담당 이대기 교수
· 고려대 대학원졸
· 수험중핵교육학 저자
· 수험정선문제 저자
· 20년 강의경력
· 現, 서울고시학원이사 교육학 대표교수
· 現, 광주한국고시학원장 교육학 대표교수
교육학 大 특강
서울고시학원
서울노량진 전철역앞 ☎ 817-5418 · 5477

□ 전남 승주군 외서면 추곡수매 현장을 다녀와서

기동취재

"농사지어 시장에 팔아도 일년 쌀농사 수입이 백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소백산맥 한줄기 타고 올라와 지리산에 둘러싸인 높고 추운 마을, 전리남도 승주군 외서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면이라는 이 마을에도 추곡수매 투쟁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2차 추곡수매가 실시되는 지난 11월20일 새벽 7시, 추곡수매 장소인 외서면 농협 앞에는 아릇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일명 닭장차라고 불리우는 전경차 세대와 십여대의 지가용, 무전기를 든 경찰 · 관원으로 공판장을 가득 매워져 있었다. 면 청년회를 중심으로 며칠동안 준비해 온 야적시위 정보를 입수한 관청에서 미리 시위 진압을 하고 나선 것이다.

"오늘 하루의 시위로 우리가 요구하는 전량수매를 달성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 것이 아니었으니 야적시위를 포기하자. 이만큼만 해도 주민들 의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고 관청의 태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여!" "플래카드 만들고 유인물 쓰고 마을 어른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는데 여기서 적당히 물러날 수 없는 거라요. 하다 깨지더라도 시작은 해야지요."

의견이 분분했다. 처음으로 단체행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니 경험도 없고 달리 지원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마을사람들 마저 대부분 부관심했다. 괜시리 설치다가 새말의 피같은 추곡수매도 못하게 되면 어쩌나는 것이었다. 결국 플래카드와 깃발을 걸고 선전전만하는 선에서 청년회측과 관청은 타협을 봤다. 어찌보면 싱겁게 끝난 싸움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야기 한다.

외서면은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경지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논이 대부분인 마을이다. 보통 평치는 약 2백평을 한마지기로 치는데 이 마을에서 한 마지기 분 쌀을 생산하려면 3백평이 족히 든다. 고지인데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조량이 적다. 그래서 다른 특용작물 재배는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벼농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외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추곡수매가 좀 많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생산량 4만 2천섬 중에서 1만2천섬만 수매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수매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크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량수매만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죠" 외서면 청년회 서동민씨의 말이다.

추곡수매를 하지 못한 나머지 분량은 보통 타작되어 시장에 팔린다. 추곡수매를 하면 방아를 찧지 않은 벼 40㎏에 4만 5천원을 받고, 시장에서 팔면 방아를 찧은 쌀 80㎏에 9만5천원 정도를 받게 된다. 보통 110~120㎏을 타작할 때 80㎏ 정도의 쌀이 나오므로 추곡수매는 약 십 3만 5천원을 받고 시장에서는 9만5천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4만원이나 차이가 나므로 농민들은 추곡수매가 조금이라도 더 되었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외서에서 9만5천원에 판 쌀이 도시에서 유통될 때는 11 · 2만원이 됩니다. 중간상인들만 이익을 보게 되죠. 한마지기 농사지어 시장에 팔면 생산비 빼고 만원 정도가 남아요. 저는 서른 다섯 마지기 땅으로 농사짓고 있는데, 솔직히 입에 풀칠도 못할 돈이죠."

농민들은 '한결같이 먹고 살 만큼만 되었으면'하고 말한다. 그래서 고지의 매서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깃발에 '생존권 보장'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일까. 험평에서 일년동안 지은 농사가 추곡수매 불합격 판정을 받자 농약을 먹고 자살한 농사꾼의 한도, 60%밖에 안되는 추곡수매량을 마을사람들에게 곧고루 나누어 주어야 하는 고통에 자살을 한 김군누 점단면의 한 이장의 심정도 깊은 농사꾼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뭐 그깐 말로 자살까지 하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농사지면서 죽고싶을만큼 절망할 때가 어디 한 두번이겠는감. 쌀 몇 가마를 불태우고 배추를 갈아엎어도 눈도 깜빡하지 않던 정부,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 좀 가졌으면 좋겠당께" 하고 김순섭씨는 말하고 있다.

농협앞 공판장에는 '외서농민 뜰뜰뭉쳐 전량수매 이룩하자' '농민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고 있을 뿐 아주 평화롭게 추곡수매가 진행되었다. 그날 저녁, 아직 전경들이 완전히 외서면 공판장에서 철수를 못하고 있을때 야적시위를 계획했던 10여명의 청년들은 옆마을 빌교에서 다시 모였다. 그날의 시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투쟁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다.

"미진한 점도 많았지만 첫 투쟁으로써 의미도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고개만 젖던 마을어른들도 추곡수매 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모두들 등급을 무척 잘 받았거든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마을사람들을 설득하고 면 농민회 건설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투쟁때는 오늘처럼 쉽게 야적시위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려서 막둥이라고 불리우는 청년의 말이었다.

현재 농민운동은 농민회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군에 군농민회가 꾸려져 있고 농민회 도연맹도 하나 하나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 농민회를 하나로 묶은 조직체,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이 꾸려져 있다. 그러나 이정도의 조직력에도 불구하고 농민운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면단위등 소규모 농민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각 농민회 조직간의 연계가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세번째로 작은땅에서의 투쟁 움직임이 그토록 관청을 놀리게 할 만큼 하나 하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단위 농민회의 필요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회 활동까지 힘들니 조직력이 미약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그러나 그 많은 농민운동의 한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외서면 청년들의 움직임이다. 이전에는 농촌총각 하면 농촌 현실을 전디다 못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외서면의 청년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농민운동을 힘차게 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농촌 리정하고 농촌총각 장가 못간다고 안스러워 하는 분들, 먼저 지기가 농촌을 위해 뭘 할 수 있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은 농촌에서 살기 싫고 농촌에 시집가기 싫으면서 그런 걱정을 하는건 일종의 위선이 아닐까요."

<정지혜 기자>

현장취재 — 동두천 시민들의 주한미군 피해상

국민 목숨 빼앗아가는 국민을 위하는(?) 주한미군

"살인자는 재판장으로 주한미군은 아메리카로"

지난 10월 28일 동두천 기지촌인 보산동에 거주하던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가 살해됐다.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자행하고 시체위에 합성세제 분말을 뿌린 후 부대로 돌아가 "내가 한 한국여인을 죽였다"라고 친구에게 지랑하는 주한미군 마클 이병.

이와같은 주한미군의 횡포는 해방이후 주한미군이 동두천 지역에 주둔하면서부터 문제시 되어왔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만을 본다면 지난 8월 윤금이씨 처럼 비참하게 당했으나 간신이 죽음만은 건진 여성이 있었고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 죽인 주한미군이 있는가 하면 각목으로 맞아 머리를 심하게 다친 주민도 있었다. 또한 주민들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한밤중에 들을 던지거나 발길로 대문차기, 자동차 유리창에 케첩이나 마요네즈 바르기 등은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돈 안내고 택시에서 내리는 경우 돈을 달라고 하면 폭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부분의 동두천지역 택시기사들이 칼이나 도리이버를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라며 황창규(택시기사)씨는 말한다. 골프장, 미식축구장 등의 화려한 시설을 갖춘채 동두천 지역의 6분의 1인 1백 50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통과해야 집으로 갈 수 있는 일부 주민들은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통과증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집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활적, 심리적 부담감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동두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의 오염이다. 박윤옥 시민회 실무자는 "물론 퇴폐, 향락문화가 동두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동두천 주민들은 퇴폐, 향락문화의 영향을 다른지역 주민들에 비해 심하게 받아요. 또한 대부분의 시골아이들과 달리 이 지역 민들 스스로 숭차거부, 업소출입거부 등을 수행하며 생활속에서 반미를 실천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서울 중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11층에 꾸려졌다. 윤금이씨를 비롯해 이땅의 국민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등 아무런 도움도 되지않는 미군을 오히려 감싸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이지영 중앙공대위 실무책임자는 "이번 사건의 근본문제는 수사권도 제대로 펴지못하는 정부당국의 태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묵인침묵 해주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 역시 문제가 됩니다" 라고 말한다. 공대위는 윤금이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규탄집회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결과 지난 18일 드디어 미2사단으로부터 사과문을 받아내게 되었다. 이후에 공대위는 윤금이씨에 대한 피해보상, 미8군으로부터의 사과문 받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등을 위해 노태우 대통령 앞으로 공개사안 보내기, 법무부 항의방문, 기자회견, 서명운동등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중앙공대위안에 포함되어있는 동두천 지역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교정씨는 "내국인급지 나이트장에 한국인 남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한국인 여자는 미군 상대를 위해서 인지 출입하게 하는 태도는 고

주한미군의 생활적 탄압, 문화 · 교육의 오염 일으켜

대책위, 피해보상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힘쓸 터

국내 최대 정보처리 전문 교육기관
컴퓨터
전산요원 수강생 모집
⊙개강: 12월 1일 4일(화)(월) 현재접수중(공휴일도 접수함)

과정	기간	교육내용
정보처리 전문과정	총 8개월	전산학 개론 및 GW-BASIC, FORTRAN-77, STRUCTURED COBOL-Ⅰ·Ⅱ, C 언어 응용 패키지, 자료구조 및 통계, ASSEMBLY 8개월 교육으로 정보처리기사 완전 MASTER
여성 OA 취업과정	4개월	PC 개요, MS/DOS, 워드프로세스(한글) LOTUS 1-2-3, DBASE Ⅲ PLUS PC-TOOLS, 키펀치(초급에서 실무까지 완성) W/P자격증(1,2급, 취득, 전산요원취업 97%)
CAD 속성과정	8주	AUTO CAD (RELEASE 11), AUTOFLIX AUTOSHADE, DELUXE PAINT, SPLASH
국가기술 자격특강	1개월	정보처리기사 1,2급, 기능사 1,2급, W/P 필기, 실기 자격취득준비생(과년도 91% 합격) 본원 저술 기출및 예출 문제풀이
W/P검정 및 OA 속성과정	2개월	PC개요, LOTUS 1-2-3, MS-DOS, DBASE-Ⅲ PLUS, W/P (한글) 2개월 교육으로 컴퓨터 문맹인에서 PC전문가가 됩니다.

※모든 교육과정중 1개월 이리도 선택수강가능
■교육은선생님에 따라 달라집니다(초보자 상담 적극환영)
■수료후 취업희망자 전원 취업추천
■전산독학사, 전문대특별전형 전산법정 및 특례보충학점 인정
■정보처리전문, 여성 OA, 사무자동화과정 교재무료지급
■방과후 1인 1대 FULL DAY 자유실습, 전철통학권발급
⊙문의전화: 538-7011~6, FAX:556-7339
⊙위 치: 강남 전철역 뉴욕제과앞 대동빌딩뒤
OCI(재학생과 졸업생이 추천하는 동양전산전문학원)
동양정보처리학원

(주)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 어학 학원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ECC 영어회화과정 신설
정원제·Placement Test실시·전 강사 Native Speakers
개강 12월 1일(화) 현재접수중
파고다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6-0509/273-4395

독일은 학비와 비자 인터뷰가 없으며 세계에서 한국 유학생이 두번째로 많은 학문탐구의 요람지!
당신도 이번 국내비용정도로 조기에 독일유학을
학비가 없는 종합대학, 음대·미대·체대
독일 유학 연수설명회
오스트리아 · 스위스 · 이태리 · 스페인
방학 어학 음악 기타 연수
설명회: 12월 12일, 오후3시
매월초개강 inlingua®
독일어
어학증명서 독일대학에서 인정
회화·문법·독해
독작·PNdS
이태리어 회화 문법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세계적 권위의 외국어학교
인링구아 서울
종로구 관철동 19-19
(종로서적 뒤 세번째 골목)
☎ 733-3804, 735-7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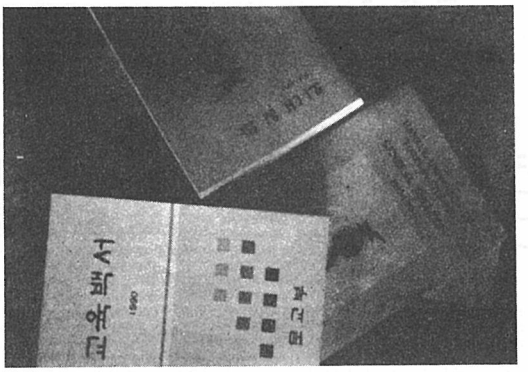
고시원
모두가 새로운 시설
(신축건물)
· 환전독방
· 냉난방시설완비
· 자동세탁기, 냉·온수 식수 및 샤워장
· 저렴한 비용
· 10분거리(서라벌고앞)
서라벌 고시원
TEL: 927-0303
환전독방에 모든시설 완비
20년간 수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전통의 고시원
· 교통: 좌석 154
일반 154-1,
154-2
기자촌 고시원
TEL: 359-0205

해외영어연수생 모집안내
연수대학: 미국 동부 소재 Delaware대학
연수기간: 1993. 1. 3(일) — 1993. 2. 14(일)
연수경비: 약 4, 830불 예상
모집기간: 11. 27(금) 마감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모집예정
여행기간: 1993. 2. 6—2. 14(9일간)
여행코스: 필라델피아, 뉴욕, 워싱턴 등 미국동부중심지
LA 및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서부중심지
하와이와이키미 및 마우이지역 등 하와이 관광
연수특징: 1. "해외영어연수" 과목으로 타 해당과목과 대체인정 가능
2. 타 영어연수코스보다 경비가 저렴하다.
3. 미국에서 가장 중심지인 동부 및 서부지역을 골고루 견학
4. 하와이지역 특히 와이키키해변, 마우이섬 등 폭넓은 관광
5.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속에서 연수가능
*자세한 문의는 각 학생처에 문의할 것
(서울 연락처: 961-4033, 4035, 취업보도주임 강영은 앞)
(용인 연락처: 0335-35-4033, 4035)
학 생 처

표류하는 외대! 학원자주화로 살리자 <열 한번째>

질높은 강의를 위한 모색…강의평가제

보도기획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지난 90년 1학기부터 총학생회 주관으로 강의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희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학기를 거듭할수록 교수들까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학의 교수평의회는 강의평가제를 올해 연구물로 삼아 올바른 평가방식과 항목개발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지금까지 폐쇄적 주종관계에 따라 이뤄지던 '강의'에 교수, 학생들이 더 질높은 강의를 만들기 위해 일대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본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학내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단지 올해안에 학내 복지상황 및 군데 개선한다고 하여 본교의 하락하는 모습을 곧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어학계열 취약성 극복위해 연구 필요

강의평가제, 특강실시부터 선행돼야

교육내용 개선을 위하여

현재 서울캠퍼스는 지난 11일 대학당국과 합의한 '학교발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교육환경은 물론 교육여건·이는 교육내용과 과정을 포함한다)을 개선해 나아갈 시금석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미 지난 여름방학 동안 '교육내용 개선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당국과 다각도로 논의하여 왔다. 이들 개선책을 살펴보면 △교수충원 △본교에 맞는 커리큘럼의 욕성 및 교육과정 개발 △비어문계열 등도 본교의 특성에 맞게 발전, 육성책 마련 △우수신입생 유치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폭수립 △학사행정참여와 비민주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측으로부터의 개선책 마련은 대학당국에게는 일정 정도 압력으로 작용, 이에 상응하는 대학당국 나름대로의 준비작업을 서두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용인캠퍼스 '제1대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속에서 용인캠퍼스의 교육환경은 물론 게반 교육여건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중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는 △교과과정 개편(전공 및 교양강좌) △강의계획서와 강의평가제 실시를 위한 준비 △특강실시 △교·강사 초청 및 교수임용에 있어 학생 참여 방안 모색 △기타 교육제반문제 개선 등을 목표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본교의 중점 학문인 어학계열의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어학만을 위주로 가르치던 예전과는 달리 인문,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순수어학만으로는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에서 나오는 의견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어학계열의 과목을 대폭 교양교과목으로 지정, 학생들이 이를 수강토록하고 있으나, 이는 교수지의 수업부담감을 가중시키고 교수지의 전공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문임을 내세워 강의토록함으로써 강의의 욕과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개설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할 만한 통로가 부족하여 선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본교가 지랑하는 '복수 전공제'에 있어 큰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7년 사회민주화 열풍과 함께 각 대학에 개설되기 시작한 '진보학문의' 교양에 있어서도 본교는 이를 무생하게 하고 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양과목이라든지 비언어계열의 경우, 연관지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의 개설을 여건히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학에 있어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미 어학전공자 및 본교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도서구입 및 연구소의 성과물 등은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학계열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해 오던 '교수, 학생 정례회의'를 더욱 강화한 각 학과, 각 단대별 '교수, 학생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으로 기중이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각 단위 발전위원회의 연구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신대의 경우 88년에 신설된 중어중문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중국본토와 홍콩의 TV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위성시스템을 강의실에 설치해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학생들의 관리아래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다. 또한 이 대학의 교수들은 지난 4월에는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이라는 주제로 교수토론회를 개최, 교육의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본교는 결국 '미사일로 대전하는 시대에 창, 칼로 싸우겠다'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내용 개선, 작은것에서부터

우선 현재의 강의계획서를 더욱 충실히 하여 수강 학생들이 과목의 제목에 따른 수강을 방지하고 지신이 필요로 하는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올해까지의 강의계획서는 모통 각 학과의 학과장실이나 교양부에 책자형식으로 비치되어 수강 학생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강의평가제 도입 부문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수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교수, 학생이 서로 강의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될 부문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갖추어진 중장기 발전위원회에서는 이에대한 실행여부를 공동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다.

교양, 전공과목 이외의 '특강'실시도 진행되어야 한다. 학내에서 주로 열리는 세미나 혹은 강연회 형식이 아닌 수업 이외의 학문적 발달을 위해서는 외부인사의 초청 및 사회 여론화된 학문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일반적인 각 학과별 학문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학생이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는 교수임용 및 신설과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도서 구입을 위한 각 단위별 '도서선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도 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반 교육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실험, 실습에 따른 여건조성은 학문의 진척도를 높이는 큰 영향 미치는 만큼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용인캠퍼스와 같은 경우 해마다 계속돼는 제약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이 상당수 지금까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성실한 태도가 요구되며 이는 수업배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부>

◇본교 대학원 진학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악조건의 연쇄사슬, 본교대학원

본교의 특수성 살린 교육내용 발굴돼야

"취직도 안되고 놀수 없으니 대학원에나 가볼까" 하는 푸념들은 더이상 우스개 소리만은 아니다.

학력의 최고봉인 대학원진학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학력실업자의 적체현상을 가중시킬뿐 더러 대학원의 질적하락이라는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본교 대학원 진학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89년도에 2백18명, 90년도에는 1백8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용인캠퍼스의 경우에는 90년도 진학 1백24명, 91년도 3백42명으로 집계된다. 이중 여학생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여대생의 취업난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렵사리 입학한 본교대학원은 실상 이수과정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취업난으로 인해 학락추세를 거듭하고 있다.

92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의식조사를 보면, 본교 학부 졸업생의 경우에도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 잘 모르고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의 원활한 교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본교 대학원의 수준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63%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나 박사학위를 본교에서 취득하겠냐는 물음에는 40%의 학생들이 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전문적인 교육내용의 취약점을 볼 수 있다.

본교 대학원의 경우 서울캠퍼스 학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즉 본교 재단의 시설투자기피로 인한 공간협소, 시설낙후 등이 그것이다. 이공계열과 농학계열이 연구실제제로 되어 있는 고려대의 경우 이미 신설되어 있고 서울대는 전문연구센타를 설립중이다. 따라서 본교도 새로운 발전방안이 시급해 졌는데 현재 학부가 지닌 문제점 중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의 중복학과들을 한 쪽은 어문학 계열로 한 쪽은 지역학계열로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대해 동구지역학과 박사과정 중인 김성형(서양·독어졸업) 군은 "현행 학부에도 지역학 개념을 도입하는 것과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건립또한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환경, 교육내용의 낙후와 전부의 문제점외에도 당장 시급한 본교 대학원생들의 불만사항은 "본교 대학원에는 주인이 없다"것이다. 이말은 대학원 관리의 소홀에 대한 문제제기로 예결산체정과 교육자재 구입에 따르는 문제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한 대학교의 학술수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본교 대학원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술지원의 부족일 것이다.

중앙대의 경우 대학원 총학생회 산하 '학술연합단체 협회'에서 연간 2회에 걸쳐 5십만원, 문화운동 심포지움에 2백5십만원, 학과지원금으로 6천8백5십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본교의 경우 그 액수와 지급회수가 적어 "학술운동에 지급되는 액수는 아예없다" 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지연과 학계열에 지급되는 실험실습비는 90년 현재 1인당 1만3천5백원으로 크게는 연세대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조교생들에 대한 장학금수혜가 매우 부족하고 대학원생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은 아예 실시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 학부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취업난에 허덕이고 '취업 못한 실업자들의 대피장소'라는 불명예가 본교 대학원에 붙게 되고 취직을 위한 지름길로 믿고 들어온 대학원은 현행 학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터에 졸업후 취직이 또 막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악조건의 연쇄사슬'인 것이다. 학문의 경지가 높은 단계 일수록 더욱 심각해져만 가는 본교 현실의 극복 방안은 오로지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무엇보다 '외국어대'의 특성을 살린 교육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일 것이다.

<김영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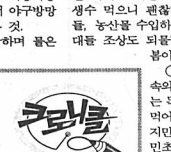
복통

○…민자네에선 때아닌 '복통'이 일어나 민초들 어안이 벙벙.

민자당과 국민당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국민당에 입적한 김복동의원이 노가리를 위시한 민자네에 '복통'세례를 내린 것.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민초들은 민자나 국민이나, 국민이나 민자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했음을 중립이길 거부한 노가리계는 각인 하시압.

○…하얀 비둘기가 고요히 창공을 날으고 있는 왕산골에 알코올이 최고라는 인식이 박히고 있다는데.



크리니틀자 알아본즉 민취한 일부 흡산들이 비몽사몽간에 학생회관에서 야구방망이를 마구 휘두른 것.

펜은 창보다 강하며 물은 알콜보다 강한 사실을 인지하고, 물지각한 알콜 추종자들이여 냉수먹고 속차리시압.

○…지구촌이란 말은 가진자나 할 수 있는 고급언어라는데.

알아본즉, EC·미국의 권력과 지본이 만나, 약소국 농민 죽이는 UR을 실시키로 하여 그 여파가 물밑듯 한반도를 덮치게 됐다고.

살농정책으로 농민은 농약을 마셔도 자신들은 외국산 생수 먹으니 괜찮다는 그대들, 농산물 수입하려거든 그대들 조상도 되물려 수입해 봄이 어떨지.

○…동화속의 외국공주는 독사과라도 먹어서 죽었다지만 우리네 민초 여성은 민족자주성 상실이 가져온 아픔을 안고 죽었다고.

민취한 주한미군 병사의 윤금이씨에 대한 끔찍한 살인이, 사대정신에 취한 한미행협에 의해 원귀마저 승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무리 사대주의가 판을 쳐도 이땅의 민초들은 말 가진이 모두 윤상의 슬픔을 알고, 그대들은 '양키고우홈'의 말뜻을 알터.

○…예년과 달리 유난히 추운 겨울 왕산골 흡산들 뜨거운 열풍을 형성하여 강추위를 거뜬히 이겨낸다고.

이유인즉, 민주정부 수립 20여일을 남겨두고 군고구마, 일일찻집, 바지회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왕산골 전역에서 펼쳐 그 기운이 대단.

(3아저씨/ 민중 사우나실에서 이 뜨거운 열기로 더러운 양심 소독좀 하시는게 어떨까.

민정열풍

비둘기칼럼

■무공해 농산물을 맘껏 사실 수 있습니다.

—여주 농산물 특설매장 개설

여주군 농민 아저씨·아주머니가 직접 판매하시므로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유기농법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농약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봄·여름·가을농활에서 외대학생들의 정성을 듬뿍 쏟은 농산물이기에 맛도 좋습니다.

· 판매기간 : 11월23일(월) ~11월29일(일)
· 판매장소 : 갈남 고속터미널 건너편 「뉴코아백화점」 지하코너
· 판매작물 : 쌀, 팥, 참깨… 등 곡류와 도자기류

모처럼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주차장까지 운반도 해드립니다.

<제13대 일대도약 총학생회·여주군 농민회>

■지지서명에 참여해주신 1만3천 학우들께 감사드립니다.

The Argus 제작중지 철회를 위한 지지서명에 2천명이 넘는 학우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라, 끝까지 싸우라는 1만3천 학우들의 당부에 힘입어 언론의 지주화를 위해 끝가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The Argus 기자 및 제4대 언론협의회 일동>

■작은 정성을 모읍시다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모금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농협 : 107—01—343483 대책위
국민은행 : 205—01—0450—583 대책위
조흥은행 : 325—01—149967 대책위

<제4대 새세대 총여학생회>

이문별

■일본어과 노래패 공연

제1회 그루터기 정기공연 '벙어리 친구야'

때 : 11월24일(화) 늦은 6시
곳 : 대학원 강당

<그루터기>

■일일호프

컴퓨터 동아리인 우리 컴퓨언트에서는 컴퓨터 구입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드세요.

때 : 11월25일(수) 12시~늦은10시
곳 : 필스호프

<컴퓨언트>

■경영학과 모교방문의 날

때 : 11월29일(일) 늦은3시
곳 : 대학원 강당 및 로비

졸업선배님들이 오시는 지리이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영학과 모교방문의 날 준비위원회>

■당선을 기원합니다

윤재욱(91)과 이정재(91) 학형의 영어과 학생회장 당선을 기원합니다.

<영어과 한 학생>

■사과문

특강을 관리해 온 지회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외대발전을 위한 파업기간 중 사회과학관의 파업본부 사용과 인문과학관의 강의실 폐쇄로 인하여 추계특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특별담당 강사님과 학우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12월 28일부터 진행되는 동계특강에서는 특강진행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학우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학생복지위원회>

동문회

(이문)

세종고
때 : 11월28일(토) 늦은5시
곳 : 장풍
안건 : 졸업생 환송회

(왕산)

강릉합우회
때 : 11월25일(수) 늦은 5시30분
곳 : 학생회관 식당

왕산골

■창작극 '유언'공연

때 : 11월24일(화)~25일(수) 늦은5시
곳 : 학생회관 전시실

해방이후부터 70년대까지 한국적인 어머니의 삶을 통해 미국에 대한 현실을 인식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창작극입니다. 많이 관람하시고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민족극패 탈, 멋과 얼의 신명소리>

■찾고 있습니다

하늘사랑 동아리방에서 프로스펙스 가방과 AIWA휴대용 녹음기를 잃어버렸어요. 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하늘사랑>

■도서 할인판매

소설, 에세이, 시집, 사회과학 등 단행본 10% 할인

사전류 15% 할인(시사, 민중, 동아출판사)

기간 : 11월24일(화)~30일(월)

<구내서점>

양캠, 대선운동 활동 활발

공명선거 감시 · 후보지원 중심

지난 21일(토) 성남에서는 성남연합주최로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가 개최됐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본교에서는 서울 ·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와 서울캠퍼스 학생선거대책본부(이하 외학선본)에서는 공명선거 감시단과 민중후보 후원회원을 모집하는등 대선과 관련한 기획사업과 선전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총학생회 사회부에서는 지난 20일(금) 내부적으로 대선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공명선거 감시단과 민주정부수립 선봉대를 모집하고 사립학교법 개정 · 사학재단 비리척결 및 그린벨트법 조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선운동본부는 오는 30일(월)까지 대학인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구조 조사작업과 아울러 오는 27일(금) 일일호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7일 4시 노천극장 또는 대강당에서 발족식 및 민중대통령 지지를 위한 대동한마당을 열고 다양한 정치활동과 기획사업을 할 예정인 외학선본은 발족식에 앞서 지난 18일(수) 부터 도서관앞과 구내다방에서 비디오를 상영하며 민중후보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외학선본은 오는 25일(수) 과 26일(목) 양일간 대선학교를 개최하여 민중후보 설명회와 강령 및 공약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준비중인 외학선본 소속 한 학생은 이번 대선학교의 의의에 대해 "현시기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적 성격과 계급적 한계를 폭로하고 민중후보의 정당성을 학내에 여론화 시키기위해 마련했다"고 밝히고 "민중후보를 범민주단일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서명작업과 만원계원 모집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학선본은 민중후보 문예단과 민중후보 재정마련을 위한 헌물건 바자회도 12월초께 열 계획이다.

한편 용인캠퍼스 대선운동본부는 오는 27일 학생회관앞에서 공정선거감시단 발족식을 거행한다. 이에 앞서 대선운동본부는 23일(월) 부터 부재자 투표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후 투표참여운동 공명선거감시단 뺏지 달기 운동, 언론보도 감시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각 단대 운동본부에서도 공명선거감시단 교양학교, 지원사업단 수익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동양학대에서는 각과별로 어문관 로비에서 지난 17일(화) 부터 1일 찻집을 운영하면서 다음 주까지 기금마련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활협동조합에서는 담배꽈이나 자판기컵에 공명선거 캠페인을 위한 문구 등을삽입해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대선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주중 단대장 선거 실시

총학, 12월 3 · 4일 선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각 단대,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이번 주 후보자등록과 유세를 거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치루어질 전망이다.

총학생회와 각 단대는 지난 20일(금) 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단대별 선거일정과 후보자 등록 시한을 확정하고 선거관리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이에따라 각 단대와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3일(월) 학내 대자보 게시판을 통해 학생회 선거 일정을 일제히 공고하고 입후보자를 모집했다.

오는 11월26일(목) 선거를 치르는 상경대의 경우는 상경대 학생회장후보에 임병준(경영3)군이 단독 입후보했고, 사범대에서는 변진선(한교3) 군과 전대영(한교2) 군이 정 · 부후보를 단독 입후보했다.

한편 26일 같이 치뤄질 법과대 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공고일인 지난 21일(토) 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어 후보자 등록을 오는 25일 까지 연기하고 오는 12월 2일(수)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지난 23일(월) 후보자 등록을 끝낸 정책과학대의 경우는 조민환(경외3) 군과 박종진(신방3) 군이 후보등록을 마쳤고 동양어대는 안재홍(일어3) 군과 김현식(중국어3) 군이 후보등록을 했다.

이들 3개 단대는 오는 25일(수) 부터 30일(월) 중 백일하여 유세를 갖고 오는2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총학생회의 경우는 아직 정식후보로 등록을 한 후보는 없으나 두 후보의 추천인 명부가 선관위를 통해 나간점을 고려할때 곧 후보등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는 1일(화) 유세를 거쳐 3일(목), 4일(금) 양일간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이제까지 과회장 선거에서는 노어과 정원락(2), 스웨덴어 이치훈(2), 마인어 박영욱(2), 터어키어과 이정권(2), 이란어과 진원(2), 영어교육과 김기현(2) · 양정희(1), 불어교육과 이바다(3), 독어교육과 장순하(2), 한국어교육과 이신우(2) 군이 당선되었다.

용인 대생협, 6차 총회 개최

조합장 황영묵, 예결산 심의

용인캠퍼스 대학생활협동조합(대생협) 제6차 정기총회가 지난 19일(목) 학생회관식당 가건물에서 개최됐다.

오후 4시경부터 조합원 5백50명중 1백40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92년도 사업결산보고와 제4대 조합장 선거가 있었다.

부조합장 제도가 신설되고 조합원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황영묵(인문 · 사학4), 김현국(동학 · 중국어2) 군이 2백41명중 2백25표의 찬성표를 얻어 조합장과 부조합장에 각각 당선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대생협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보고와 사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판매장려금에 대해 김운기(제3대 조합장, 동학 · 아프리카어4) 군은 "거래업체에서 공정거래법상 단가를 낮출 수 없을 경우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동안 이 돈은 매장 진열장 등 시설투자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적립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돈의 사용 방향에 대해서는 임경석수(기안, 5천만원) 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했다.

조합원 질의시간에는 각 매장 개폐 시간 엄수와 직원들의 친절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조합 참여 우수과로 선정된 불어과와 아프리카어과에 대한 시상식도 실시되었다.

용인 총여,회장 최영미 부회장 엄상란 선출

용인캠퍼스 총여학생회 제5대 정 · 부회장에 최영미(서학 · 루마니아어4) 양과 엄상란(서학 · 불어4) 양이 각각 당선됐다.

지난 19일(목)과 20일(금) 양일간 찬반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최영미 엄상란 조는 7백47명이 투표하여 6백65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37.8%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선거유효선인 30%는 넘었으나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

외학선본, 걷기대회로 대선승리 다짐

◎지난 11월21일(토) 오후1시 본교 노천극장에서는 외대학생선거대책본부 주최로 '대선승리를 위한 걷기대회 출정식'을 개최하고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열린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동국대에 모인 학생들은 민중후보운동의 승리를 다짐하며 민중후보승리를 위한 전국학생 국토순례단 발족식,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민중후보 한마당, 대선승리를 위한 예술제를 개최했다.

대선 부재자 신고 내일 마감

총학 창구 · 동사무소서 접수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12월 18일(금) 로 확정됨에 따라 양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부재자 신고를 각단대건물 앞이나 로비에서 받고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72년 12월 19일 이전 출생자로 투표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지이다.

부재자 신고요령은 동사무소 또는 총학생회 대선운동본부에서 준비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체별 또는 개인별로 오는 25일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교생중 주민등록지가 지방일 경우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오늘(24일) 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부재자 투표는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투표장소는 투표구 선관위가 지정하는 영외투표소이다.

용인, 27일 학자학교 개최

학자원론, 교육개혁안 강의

용인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학자학교가 오는 27일(금)과 28일(토) 1박2일동안 열린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가 주최하는 이번 학자학교는 용인캠퍼스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며 학자원론과 대학교육개혁안에 대한 강의와 분임토의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자추체들의 학자투쟁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사상 교양을 위해 준비된 학자학교는 앞으로 진행될 학자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자학교는 27일(금) 오후 4시부터 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학원자주화 투쟁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강의로부터 시작한다.

그후 강의평가제 실시 등 교육과정개편투쟁과 학원안정화대책의 심상에 대한 토론, 93년 학자사업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학과움직임

◎서울 서반아어과, 정기 사회과학 심포지움 개최

서울캠퍼스 서반아어과 사회과학학회에서는 어제 (23일) 오후 5시 대학원강의실(104호)에서 '베닌주의를 옹호하자'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국가자본주의를 연구하는 '제5차 정기사회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서울 중국어과, 민중후보 설명회 가져

서울캠퍼스 중국어과에서는 지난 20일(금) 5시 중국어과 방에서 민중후보 설명회를 가졌다.

◎서울 일본어과 '그루터기', 오늘 정기노래 공연 개최.

서울캠퍼스 일본어과 노래패 '그루터기'에서는 오는(24일) 오후6시 대학원소강당(6105)에서 "빙어리 친구여"라는 제목으로 정기공연을 가진다.

◎서울 신방과, 광고영화제 개최

서울캠퍼스 신문방송학과 광고학학회에서는 지난 18일(수) 과 19일(목) 양일간에 걸쳐 시청각 영사실에서 '92 칸느영화제 수상작품을 중심으로 제3회 광고영화제를 가졌다.

동아리 소식

◎서울 핸드볼부, 지난 21일 고베대학과 친선경기 가져.

서울캠퍼스 핸드볼부는 지난 21일(토) 오전10시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고베대학 핸드볼부를 초청해 친선핸드볼경기를 가졌다.

◎용인 민속굿패, 24일 · 25일 풍물굿 공연

용인캠퍼스 민속굿패인 발반과 신명소리에서는 오는 24일(화) 과 25일(수) 오후5시에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풍물굿 '유연'을 합동 공연한다.

◎서울 합창단, 어제 정기연주회 개최

서울캠퍼스 합창단에서는 어제(23일) 오후 5시 본교 대강당에서 제5회 외대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용인 해무리, 오는 26일 정기공연 개최

용인캠퍼스 '해무리'에서는 오는 26일(목) '아,/ 개판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장소는 학생회관 식당이며 오후 5시부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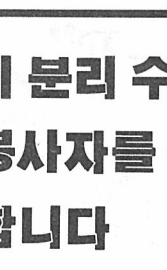
이사람

"파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번 서울캠퍼스의 수업거부는 학생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지만 그 반면에 학생들이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본교에서 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 영어과 외국인 교수 데이빗 알 코소프스키(David. R. Kosof(sky) 씨는 이번 수업거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코소프스키 교수는 "이전과는 달리 근래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내놓으리만치 개성이 독특하고 현명하다"며 본교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는 자신이 대학 재학 중이던 70년대의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근래의 대학생들의 사고방식은 크게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칭찬하며 지국과 우리나라 대학생들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반면 이기적인 면도 존재함을 덧붙여 지적한다. 이에 대해 그는 "우선 틀에 박힌 관념적인 범위안에서 사고하지 말았으면 한다"라며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 속에서 그 나름대로 잘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학당국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교 영어과 교수로 재직중인 코소프스키씨를 만나>

외국인 교수로써 다른 국가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그는 이번 서울캠퍼스의 수업거부를 보며 안타까운 점도 있다는 점을 밝힌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한번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로가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기 앞서 이해심을 넓혔다면 좀더 좋은 방법이 모색됐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코소프스키 교수 나름대로의 고충이 엿보이는 말이다. 이는 계약강사으로 와 있는 입장이기에 교수직분이지만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크게 보장받지 못하는 자리라는 점이 감안된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자신의 외국어에 대한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재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저 교재를 읽고 쓰는 방식은 학습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라며 "특히 외국어 회화에 있어서는 실제로 유효하게 쓸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자신의 수업방식을 설명한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더 좋은 강의를 위해 교수, 학생, 대학당국 모두가 서로 협력하였으면 한다"며 다시한번 학원 주체들의 단합을 호소한다.

<정공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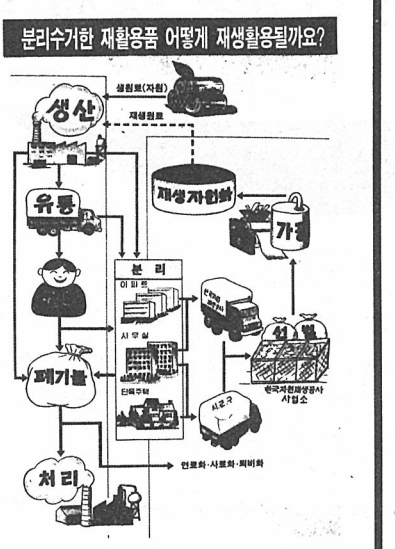
쓰레기 분리 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학내 소비지향적이고 향락적인 생활풍토를 지양하고 작은 실천으로 학우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생활을 극복하고, 방관하는 생활에서 직접 참여하는 외대 사랑의 작은 실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차원뿐만아니라 좁은 이문동 캠퍼스의 환경 보호를 위해 학원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외대사랑 운동의 시작입니다.

관심있는 학우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학생복지위원회 961 – 4447



외대사랑 학생복지위원회

공정선거 교양학교를 아십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조직적으로, 보다 자신감있게 공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공정선거 감시단의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각 과 공정선거 감시단 학우들은 주목하십시오.

첫째날

25일(수요일) 오후5시

강연 : 공정선거 감시에 대하여

1) 공정선거 감시운동이란 무엇인가?(필요성과 의의)

2) 활동내역과 행동수칙

3) 조직, 편성(국민회의와 공선협과의 관계)

둘째날

26일(목요일) 오후5시

강연2 : 부정선거 사례에 대하여

1)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하여

2) 금권, 관권 부정선거에 대하여

3) 투 · 개표 부정선거에 대하여

인문대 선거운동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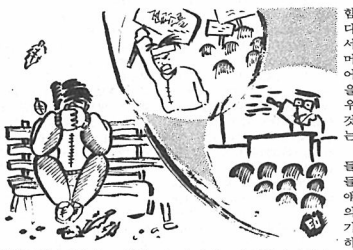
□수필—전교조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메마른 교정에 믿음의 씨를 뿌리며

어느새 이문동의 낡고 좁은 캠퍼스에도 찬 공기가 가득차 버렸다. 때론 고민도 하고 때론 슬퍼도 하며 또 때로는 가슴뿌듯함에 기뻐도 했던 나의 서투른 1학년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하나 둘 후배들이 원서를 들고 낯선 눈빛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학교를 찾아오고 있다.

책상위에 뒹굴고 있는 전공책과, 내 의식의 폭을 넓혀준 여러 책들이 나의 무의식적인 나태함을 원망하듯 바라보는 것같다. 수업으로, 이런저런 일들로, 사람들로 지치고 무거워진 내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익숙한 밤거리를 걸으며 종종 떠올리게 되는 고교시절의 밤거리. 두꺼운 교과서와 참고서, 도시락으로 가득한 무거운 가방을 힘겹게 걸치고 다녔던 그 길.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접해보고 싶었지만 나의 게으름과 함께 존재했던 숨막히도록 답답한 교육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나에게 아직도, 그리고 우리 후배들의 표정속에 아직 남아있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하고 싶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사회비판적인 말씀을 하실라치면 곧장 눈치를 보며 답답함을 남긴 채 말씀을 중단하시던 선생님들…. 주위 학교에서 들려오는 젊은 해직선생님들의 목소리와 안타까움 가득한 학생들의 함성들. 아침에 잠깐 나붙었다가 모조리 압수되었던 소자보와 문건들. 많은 것을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답답함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마음에 존재했던 그때의 생각이 어슴프레 떠오른다.



전교조 선생님 한 분 안계시는 우리 학교의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술자리에서 토로하시는 선생님들의 불만을 들으며 그 안타까움이 때로는 분노로 변했으며, 내가 할 일을 찾게 되었다는 작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게 아닌데…'라는 여운을 남긴 채 책장을 넘기며 무조건 외우는 윤리책, 시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국어책 속에서 점점 더 좁은 시각을 갖게 될 지 모르는 우리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결국 고등학교 동기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후배들이 민주적인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과공부에 지친 머리를 식히며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며 동시에 최선의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때때로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선생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자 했지만 각자의 학교일로 바빠졌던 이번 학기에 우리는 같이 만나지도 못하는 스스로에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남겼다. 보수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후배들의 모습과 용기있게 나서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들의 나태함에 실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믿는 나의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결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모두들 현실을 담담해 하면서도 이땅에 발딛고 선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직교사 원직복직과 교육대개혁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외침이 요즘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우리 대학인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조금은 넓고 큰 세상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고민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이 우리 후배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쁨을 갖고 다시 한번 친구들과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진보'

이 좋은 말 한마디가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는 요즘이지만, 한 편으로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얻기도 한다. 친구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전하며 좀 더 바빠지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지친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하게 될 그 날을 위하여 다시한번 나를 채찍질해 본다.

김 태 식
<정과 · 정외1>

조시(弔詩)

—대환형의 영전에 바침

조 찬 일
<용인캠퍼스 인문 · 사회과학대 교학과 주임>

그날, 시월 스무 나흘날 저녁
그대 승천(昇天)하심을 듣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대를 결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문동 이백칠십번지
그대의 젊음을 애통해 하며
캄캄한 한밤의 노제(路祭)가 끝납니다.

산청(山淸)의 푸른 개울을 따라
주렁주렁 감이 붉게 물든
그대의 고향을 찾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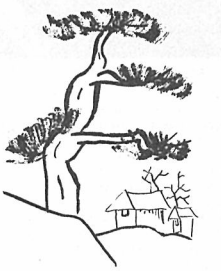
맑은 냇물에 뿌연 물안개가 피어 오르고
길가 수양버들은 길게 늘어 섰습니다.

억새풀은 오늘따라 그리도 많이
바람에 나부끼는가!

고추잠자리 날으는 누런 들녘
그대를 묻으려 산에 오릅니다.

삼천포끝 멀리 남해의 물결이 보이고
하늘에는 낮달이 떠 있습니다.

학(鶴)처럼 살다간 친구여!
통곡(慟哭)하고 싶구려
부디 안면(安眠)하소서



지난 달 24일(토) 위암으로 사망한 노대환(본교 교육대학원 직원)씨의 장지를 다녀오며 지은이가 쓴 추모시를 실습니다.

<편집자>

□연극평—모노드리마 '자기만의 방'을 보고

족쇄를 끊고 여성 스스로를 노래하라!

'자기만의 방'이란 버지니아 울프의 연작 에세이 제목이다. 그 책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작가로서의 여성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목을 따온 이 연극에서는 비단 작가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그러한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고, 동서고금의 수많은 여성들 즉, 억압과 착취의 대명사들적인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펼쳐 나가고 있다.

이 연극은 교수 겸 연극인인 이영란씨의 모노드리마이다. 그녀는 먼저 많은 '여성'에 관한 책들— '여성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등등 여성분야에 관한 것과 여성에게 주어진 문제에 관한 것—이 대부분 남성에 의해 씌여졌다고 말하고, 잠시코만 있었던 여성들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나타낸 남성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은 여성들은 교육을 받아서도, 말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어떤 이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 보았자 부엌안을 벗어나지 못한다고까지 말하였다. 마××교수는 여성을 오로지 성적유희의 대상으로만 묘사했고, 이른바 '생명'바람을 일으킨 김××씨는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어서 이영란씨는 이러한 남성중심의 역사속에서 사라져간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지닌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 줄의 지휘도 남길 수 없었던 것은 이 세상 절반이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남성들의 잘못된 여성관 때문이라고 강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는 또 문학 작품속에서의 여성, 즉 심청이, 춘향이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들의 효심, 정절은 오직 남성의 머리속에서만 존재해 왔고 길러져 왔던 망령과도 같은 것이고, 열녀문과 효부비와 비교하여 수많은 침등을 거느렸던 조선시대 양반들을 꼬집었다.

그리고 그녀는 춘향이와 심청이가 20세기의 지금에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말하며, 그러한 예의 인물로서 '벌들의 고향'의 경아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맞서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지켜야만 하는 우리 주부들과 설사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위에 산적하게 쌓이는 많은 문제를 지니는 여성들에 관한 것도 제시하고 있다.

끝무렵에 이영란씨는 자신의 붉은했던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녀는 계부에게 학대받았던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고, 그녀의 어머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죽어간 수많은 우리의 여성들을 위해서 최소한 그들의 방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하며 끝을 맺었다.

나는 광적인 여성 해방론자도 그렇다고 순종형의 조선여인도 아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의 명예나 월급봉투를 얻으려고 하기 이전에 또는 자식의 출세만을 바라보고 있기 이전에, 스스로에 의한 그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또 이 연극은 산만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그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아쉬움을 느끼며 몇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러한 해결책은 여성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성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치관, 제도, 단체들이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런지…?

강 신 영
<서학 · 황가리어3>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파수대

공정선거감시의 어린 눈

서초동 꽃마을 어린이들이 '공정선거감시단' 뱃지를 가슴에 달고 '아! 민주정부'를 힘차게 부르고 있다.

<강인숙 촉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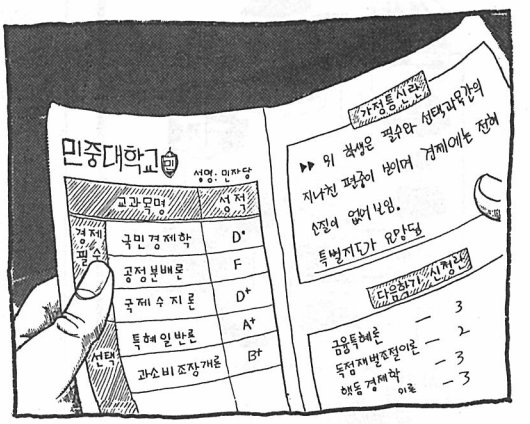
"사랑으로 매긴 6공 경제성적표—F"

장바구니 물가 요즘 어머니들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6공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10%라지만 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49.9%, 장바구니 물가는 68.2%라니, 어머니의 한숨은 언제쯤 그칠까요?

물가불안의 요인은 다름아닌 독점재벌이 설정한 독점가격때문이고 재벌의 망투기에 의한 주거비상승은 대다수 시민의 기초적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라면먹는 사람이 살림을 늘여 라면에 김치를 얹어 먹는 서민에게 '과소비'를 꾸짖는다면 해외나들이 한번에 수십억 씩 쓰는 '보통사람'은 무슨 소비라 불러야 할지.



특혜로 성공하는 사람들

민자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을 마련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90년 통계에 의하면 53개 재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총자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민자당은 공약에도 나와있는 재벌의 불로소득을 근절할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3당 합당이후 정부는 재벌에 대해 여신규제를 완화해줘 금융은 재벌이 독점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1년에 5,000개가 도산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

작년 전체값은 26%가 올랐고, 월세값은 46%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작 17% 인상에 평균기본급은 36만원이었습니다.

노동자 4명중 3명이 셋방살이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은 안하고 돈만 많이 받으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최저임금 22만7천원, 총액 5%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합니다. 쉬는 날이 너무 많다며 공휴일을 이틀씩이나 없애더니, 쥐꼬리만한 월차·생리수당조차 주지 않으려고 근로기준법도 고치려 합니다.

권력을 둘러싼 파벌 싸움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은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개방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이 원조한 돈이 열배인 1,300억 달러를 자국으로 인출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 자본, 시장의 해외 의존으로 인해 국민이 피땀흘려 생산한 나라의 재산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해외로 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여건이 조금만 좋아지지 않으면 심한 불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경제문제 해결을 외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